

제 8기 한총련 공식 출범

## 한총련 출범식 평화적 진행



사진/전대신문(가운데)이재민

한총련출범식에 참가한 학생들이 지난 26일 부산대 정문앞에서 부  
산 시민·학생한마당을 진행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이희철·조선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부산대학교에서 제 8  
기 한총련출범식을 개최했다.

서총련, 부경총련 등 전국 7개 지역총련 1만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출범식은 26일 부산시민학생한마당과 전야제  
가 진행됐다. 이어 27일에는 △한총련박람회 △통일대토론회 △  
한총련 출판마당 △민중연대한마당 등이 열렸으며 28일 오전 7  
시부터 한총련출범식 행사가 △의장취임식 △문화공연 △의장  
결의발언과 출범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출범식은 한총련이 지난 98년 6기 출범식부터 정부에 평  
화적 시위 보장을 요구한 이래 처음으로 경찰과 마찰없이 모든  
일정이 진행됐다. 이희철 한총련 의장은 결의 발언에서 "한총련  
은 이적규정으로 지난 14년 동안 정부의 탄압을 가장 심하게 받  
아왔으나 오늘에서야 평화적인 개최를 이뤄냈다"며 "출범식을  
계기로 100만 학생이 반미투쟁과 조국통일투쟁에 함께 해 연방  
제 민족통일을 이루자"고 전했다.

이어 한총련은 28일 오전 10시 8기 한총련 성사 보고 및 6월  
투쟁방향에 대해 3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희철 한총련의장,  
박제민 한총련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대의원 수  
배철폐와 구속된 학생 석방 △출범식 참가단의 무사귀환 보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희철 한총련 의장은 "학생, 노동자, 통일인  
사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출범식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며 이번  
출범식을 평가했으나 "경찰은 부산으로 내려오려는 전국의 대학  
가를 검문해 학생을 연행하는 등 여전히 폭력으로 탄압하고 있  
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한총련은 6월 투쟁을 △반미반김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부패정치인 당선무효화 등의 내용으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 이  
에 따라 △31일 노동자 총파업투쟁 결함 △다음달 3일 전국노동  
자대회 참가 △다음달 10일 남북해의청년학생 실무회담당사자 투  
쟁 등의 주요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6일 분교에서도 총학생회(회장=이승복·반도체과  
학4)를 비롯한 100여 학생들이 출범식에 참가하기 위해 차량을  
준비, 출발하려 했으나 출범식 참가를 막기 위해 정문 앞에 대기  
하고있던 50여명의 전투경찰이 이를 저지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  
대학부

# 전공 결정 제도 개정

## 신청자격 제시 3차례 선택 가능 ... 학문특성 고려한 기회 확대

1차례로 제한했던 전공결정기회  
가 3차례로 늘어나는 것을 내용으  
로 전공결정제도가 개정됐다.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시하  
는 이번 개정에서는 전공선택을  
△입학직후 △2학기 이후 △3  
학기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실  
시하며, 단과대별로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각 전공배정인원도 시  
기별로 나누어 진다. 그러나 입학  
직후 실시되는 전공선택은 2001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가능하다.  
1차 전공결정은 수능성적만으  
로 선발하는 특차 후반기모집 합  
격생의 상위 10%와 정시모집 합  
격생의 상위 10% 학생에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한편, 특차후  
반기모집을 하지 않는 이과대와  
생명자원과대학 등은 정시모집  
합격생 중 상위 10% 학생에게  
신청자격을 준다. 2·3차 전공결  
정 신청자격은 단과대학이 자율  
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누계평점평균, 대학지정공통과목  
이수여부 등 전공결정 신청자격  
을 마련해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3차 전공결정은 1·2차  
에서 결정하지 못한 나머지 학생  
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표참조)  
단, 1차 시기에 신청자격을 갖  
춘 학생이 전공선택을 하지 않고  
2·3차 시기에 전공선택을 할 경  
우 2·3차 전공신청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희망전공에 우선 배정  
된다.

시기별로 따라 전공배정인원을  
살펴보면 단과대는 전공 기준정  
원의 최대 150%까지 전공인원을  
선발할 수 있어 이를 1·2차와 3  
차로 나눈 △A형=100%, 50% △  
B형=80%, 70% △C형=50%,  
100% 3가지 유형 중 한가지를  
단과대별로 선택해 시행한다. 단  
과대별 유형은 다음달 9일 학장  
을 비롯한 단과대 교수들이 회의  
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표〉모집단위별 전공배정 신청자격 예시

모집단위 신청시기	불교대	사회과학대
입학직후	모집단위별 입학성적 상위 10% (특차후반기 상위 10% 및 정시모집 상위 10%)	
2 학기 이 수 후	2000년 입학자 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지정 공통과목 3강좌 모두 이수</li> <li>■ 누계평점평균 3.0이상인 자</li> <li>■ 30학점 이상 취득</li> </ul>
	1999년 입학자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계평점평균 3.0이상인 자</li> <li>■ 30학점 이상 취득</li> </ul>
3학기 이후	나머지 학생 전체	

이번 전공결정제도 변경과 관  
련해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  
공학)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각 전공 특성상 3년 이상 전공  
공부가 필요한 전공도 있다"며  
"각 대학의 학문적 특성을 반영  
해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공과목  
에 대한 학습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학기 또는 3학기를 이  
수한 후 휴학을 했던 복학생도 새  
로운 전공결정제에 적용된다. 복  
학생은 현재 통합된 모집단위  
에서 설정한 전공배정 시기를 따르  
게 되지만, 전공선택은 입학 당시  
의 모집단위 내에서 실시된다.  
김현중 기자  
rocket123@dgu.ac.kr

##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 활발한 기탁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으로 불  
자들의 기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3일 신홍사 주지 성일  
스님이 본교에 2천만원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 25일 김미타님(법  
명)보살은 3천만원을 기부했다.  
한편, 경주캠퍼스에 재학 중인  
스님들의 모임인 석림회(회장=  
학현스님)가 탁발로 모은 2천만  
원 중 6백5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본교에 전달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기도 화성 신홍사에서는 불교병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탁발의식을 거행했다.

## "한국문학의 태백산맥에서"

### 제38회 전국고교생 백일장 성황리 마쳐

본사와 문예창작학과가 공동주  
최한 제 38회 전국 고등학생 문  
학콩쿠르가 지난 27일 분관 중앙  
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예선에서 약 6대 1의 경쟁을 거  
쳐 입상한 고교생 3백 54명이 참  
석해 시, 소설, 수필 부문에서 각  
자의 실력을 발휘했다.  
각 부문별 주제는 △시=새, 단  
오 △소설=지하도, 숲 △수필=  
거리, 향아리였다.  
심사결과 시부에서는 김무미  
(영광해고2), 수필부에서는 김  
정민(경기서현고3), 소설부에서

는 석재임(부산동여고2)양이 장  
원을 차지했다.

### 미시령사고 수습 공로자 감사패 수여

송석구 총장은 지난 16일 미시  
령사고 수습에 기여한 관련자들  
을 직접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  
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사람은  
△김진선 강원도지사 △황중국  
고성군수 △김인영 고성경찰서장  
△동문성 속초시장 △원원희 속  
초소방서장 등 총 5명이다.

## 총동창회 정기 이사회

본교 총동창회(회장=권노갑)는  
지난 23일 엠베서더호텔에서 제2  
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송석구 총장과 권노갑 총동창  
회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동문들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  
사는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동  
문들에게 축하패를 수여하고, 대  
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임위  
원장으로 임명된 백경남(정치외  
교학)교수의 취임축하연도 함께  
진행했다. 이 날 권노갑 총동창  
회장은 "보다 많은 동문들이 국  
가의 인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모교에서 배워 얻은 것만큼 모  
교에 봉사할 것"을 당부했다.

## 고수동정

- ▲박인국(생물학)=지난 19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0회 과학기술우수논문 상 시상식에서 이학부문 수상
- ▲김영태(전기공학)=오는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하와이 주마우이에서 열리는 WAC2000 학술대회 참가
- ▲원치선(전자공학)=지난 27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SO의 MPEG 국제표준화회의 참석
- ▲강석원(일어일문학)=지난 22일 개최된 군산대 인문과학연구소 주최 학술강연회에서 '외국 문화의 이해와 수용자세'란 주제 로 강연

## 알림

이번 제1298호가 2000학  
년도 1학기 종강호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1299호는  
오는 8월 28일자로 발행할  
니다.

## 지면안내

- ☞ 인터넷 방송국 11면
- ☞ 남북 정상 가상 인터뷰 4면
- ☞ 사진으로 본 2000년 대동제 5면
- ☞ 전국고교생문학콩쿠르 입선작 6~9면



## 참회와 용서 빠를수록 좋다

윤 정 광 (불교방송 고승열전 작가)

지난 5월 11일은 '부처님 오신날'이었다. 참  
으로 오랜만에 평화롭고 조용한 가운데 초파일  
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초파일을 며칠 앞두고 펼쳐진 연등행사도  
이제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민족의  
축제'로 자리잡아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탄성  
을 금치 못했다라는 보도를 접하고 기쁘게 그  
었다.

그리고 초파일 밤, 서울 성북동 길상사(吉祥  
寺)의 아름답고 환상적인 연등아래, 법정(法  
頂)스님을 모시고 펼쳐진 '작은 음악회'에 참  
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날 밤 참석자  
모두에게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을 환상적인 행  
복이었으리라.

종단이 화합하여 평화롭고 조용히 초파일을  
맞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 우리모두에게 얼마  
나 큰 기쁨과 위안과 마음의 평화를 안겨줄 수  
있는가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 불교계에 더 이상은 잡음이 없  
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불교계에 더 이상 종권  
다툼과 탈선과 각목과 추태는 없어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불교계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야기되어 왔던 다툼과 분규로 파생된 후  
유증을 말끔히 씻어내고, 서로 손잡고,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부둥켜안고, 서로 참회하고,  
서로 용서하여, 부처님이 이리신 '자비로운 세  
상'을 만들어 보여주어야 한다.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고 인터넷이 사람들  
을 변형시켜 가는 이 삭막한 세상에, 인간의 행복  
이 어디에 있는가를 불교는 제대로 보여주  
어야 하고, 가르쳐 주어야 하고, 속삭여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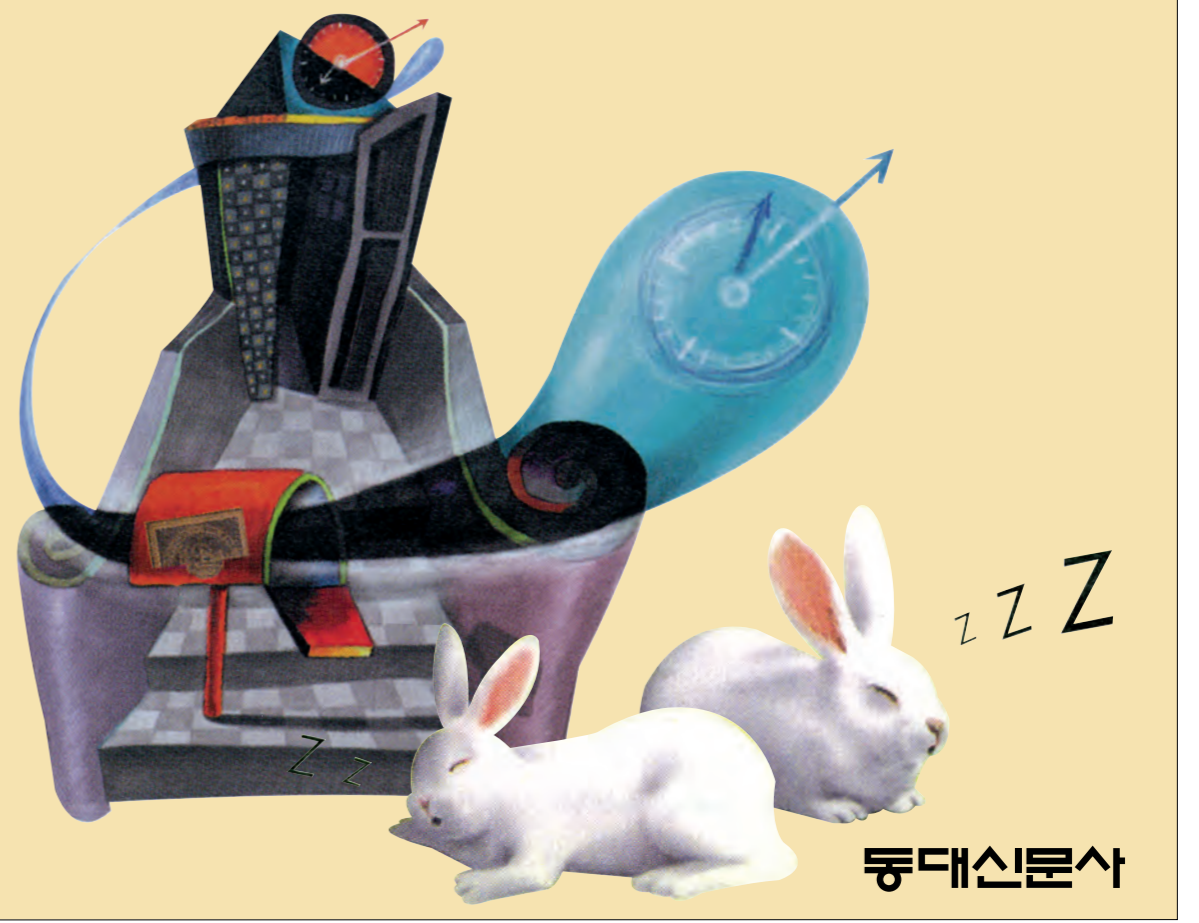
그러자면 우선 무엇보다도 불교는 너그러워  
야 하고, 자비로워야 하고, 포근해야 한다. 본  
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투쟁이 아니고, 다툼이  
아니고, 자비롭고 포근한 속삭임이었다.

잘못했던 일이 있으면 지체없이 참회하  
라. 그리고 용서는 빠를수록 좋다. 21세기  
미래의 불교를 위해 종단의 대대면령이 기  
다려진다.



# 책, 쌓아두고 구경만 하세요? 이제 한 학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한켠에 묵혀둔 책,  
미뤄둔 일들을 꺼내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입니다.



발전기금 ARS 7000-119

### “홈페이지가 달라져요”

다음달 4일 개편 ... 업데이트 계속

본교 홈페이지가 다음 달 4일 개편될 예정이다.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은 △수강신청 △증명서 발급 △장학신청 △성적공시 △강의평가 등 학사행정에 관한 정보를 주내용으로 하고 현재 제작 중인 △부록시장 △분실물 센터 △급주의 식단 등 대학생생활정보와 △단과대 게시판 △동아리 게시판 △알림방 등 여문 부문들을 수시로 올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관리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개편 예정이었던 홈페이지가 예상보다 내용이 많아 늦어졌다”며 “홈페이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내용을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 “여학생 창업 강좌에 오세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

여학생실(실장=김영순·화학)은 창업지원단과 함께 오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여성 창업자를 위한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창업교육강좌를 연다.

본교 재학생 중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강좌는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창업강좌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돼 열게 된 것이다.

일정을 살펴보면 △7일= ‘창업과 기업가 정신·창업절차’ △8·9일= ‘인터넷 비즈니스’ △10일= ‘창업 관련 정부지원 제도 및 자금 조달방법’ △11일=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실습’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최종엔 양재·포이 벤처지원센터 소장,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등 벤처 관련기관 관계자가 강연한다.

### 농구부 전국대학농구대회 출전

축구부 전국체전 예선대회 참가

본교 농구부(감독=최성호)는 다음달 5일부터 10일간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에 출전한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대회에서 농구부는 대회 첫날 연세대와 경기를 갖는다.

축구부(감독=김승기)는 다음달 8일 효창구장에서 개막하는 ‘서울시장기권 전국체전서울예선대회’에 참가하며 이어 22일부터 ‘협백코리아배 2000 제1회 전국남녀대학축구대회’에도 출전한다.

한편, 오는 7월 10일부터 미국 애리조나에서 펼쳐지게 될 ‘한미대학야구선수권대회’ 대표팀에 본교 야구부 한대화 감독이 코치로 선임됐으며 △박한이(경영4) △강규태(법3) △박정권(체교1)은 대표선수로 선발됐다.

# 노조, 유니온 슝 제도 도입

## 직원 노조가입 강제성 부여 ... 올바른 한 목소리 기대

본교 직원노조(위원장=백경선)는 취업과 동시에 취업한 기업 노조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유니온 슝(Union Shop)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본교 직원들은 강제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된다.

직원노조는 지난 26일 학교측과 보충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 1일 이후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은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도록 했다. 이번에 체결된 보충협약은 99년도 단체 협약 내용 중 제1장 6조의 ‘조합원 범위와 방해금지’ 조항에 관한 것이며 유니온 슝 제도의 도입을 명시했다. 유니온 슝 협약을 맺게 되면 조

합원인 근로자가 노조를 임의로 탈퇴하거나 해당 노조 가입을 거부할 경우, 고용주에게 해고할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유니온 슝 제도를 도입한 대학노조는 고려대와 한양대를 비롯한 몇 개 학교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의 대학은 노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오픈 슝(Open Shop)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강형석 직원노조사무국장은 “갈수록 직원들이 개인적이고 보수화 되면서 노조의 힘이 많이 약화됐다”며 “유니온 슝 제도가 노조의 역량을 높이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8년 대학가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학구조조정’은 이런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움직임으로 정의되는 측면이 많았다.

지난해 전국에 있는 각 대학 직원노조들은 단체와 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첨예한 대립을 벌이는 가운데, “단체와 연봉제가 교직원의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라고 반발하며 즉시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유니온 슝을 실

시하고 있는 고려대 직원노조는 지난해 단체와 연봉제 실시뿐만 아니라 학교측에서 내놓은 구조조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직원노조는 학교행정과 경영의 가장 근접한 곳에서 감시와 견제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최적합한 조직이다. 더불어 유니온 슝은 앞으로 직원노조가 더 크고 강하게 뭉쳐 올바른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선 기자 eunsun@dgu.ac.kr

### 다향관 6월 초 개관

1층 서점, 안경점, 잡화점 등 복지매장 입주

지난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다향관이 이달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미 다향관 3층은 정보관리실이 입주한데 이어 2층에는 SRC(양자기 능반도체연구소)와 세미나실, 1층에는 서점, 매점, 안경점, 잡화점, 문방구 등 복지매장이 들어서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빠르면 6월초부터 복지매장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설 관리팀은 다향관에 기존과 다른 여러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다향관의 명칭을 바꿀 계획이다.

### 미디어아트센터 동국관 2층 신설

영상정보통신분야 특성화 일환

본교는 영상정보통신분야 특성화의 일환으로 ‘미디어아트센터’를 건립한다.

동국관 2층에 총 70여평 정도를 차지할 미디어아트센터는 7월말 경에 완공돼 영상정보통신분야 대학원 교육실습에 주로 이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내부 고가 장비를 임대하고 사설강좌를 개설하는 등 수익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팀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영상 제작분야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특수영상물 제작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원총, 31일 학생 대표자 회의

조교제도 개선·복지사안 등 논의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영재·정치학 박사과정 2학기, 이하 원총)는 오는 31일 대학원 학생대표자회의를 연다.

지난 24일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되었다가 다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동원화술상 △외부학술단체 참가비지원 △복지사안 △상반기 예·결산 △세미나팀 지

원 경과에 대한 보고와 △집행부 인증 △상반기 사업계획 인증 △조교제도 개선안 협상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원총은 이번 대표자회의의 성사여부에 따라 조교제도 개선안을 학교와 타결지를 예정이며 협상이 무산될 경우 조교제까지 진행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병문 석방 서명운동... 대동제 기간인 지난 22·23일 이틀간 중앙도서관 앞에서 '양심수 유병문 석방을 위한 동국인 서명운동'이 있었다. 학생복지위원회는 학내 직원노조와 교수회를 비롯한 5개 단체에서 '유병문 석방촉구' 탄원서를 받아 오는 6월 13일에 열릴 제2차 한소심리 때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유병문 석방대책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탑골공원에서 '유병문 석방 촉구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조계사 농성해제를 요구하면서 '자진출두하면 수배를 해제하겠다'는 청와대의 약속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현중 기자 roket123@dgu.ac.kr

### 대교협, 학문분야평가

본교 건축공학·법학 분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건축공학과 법학분야에 대한 '99학년도 학문분야평가'를 실시한다.

각 대학의 학문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98년부터 진행된 학문분야 평가를 위해 본교는 지난 18일 자체평가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했

다. 이에 6월 중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로 거쳐 8월경 최종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2학기에 있을 2000학년도 평가 학문분야는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와 재료공학분야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ac.kr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ac.kr
부주간	백승석	하이텔 ID	dgpress 나무누리 ID 동대신문
편집국장	박상관	천리안 ID	dgpress
편집장	김진아	구독문의: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61)770-2058 팩스 (0561)770-2057

### 2000학년도 2학기 복수전공(추가)

- 대상 : 2000학년도 2학기 3학년 복학자 및 재학생 중 복수전공 희망자 (본교 취득성적이 있는 3학년편입자 포함)
- 선발인원 : 99학년도 2학기 복수전공 결정 잔여석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0.8.23(수) ~ 25(금)
- 확정공고 : 2000.9.4(월) 이전
- 대상학과 : 계열제한 없이 전학과, 전공 (단,잔여석이 있는 학과,전공)
- 제한사항
  - 한의학과, 의학과로의 복수전공 불가
  - 캠퍼스간 교차 복수전공 불가
  - 비사범계열 학생은 교직이수자에 한하여 사범대학내 학과로의 복수전공을 허가함
  - 예,체능계 학과(전공)지원시 해당학과(전공)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하여야 함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각 대학 교학과
- 선발인원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교학과에 배포된 '복수전공 이수 신청원 작성시 참고사항'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 2000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 재입학

- 일반 휴학
  - 접수일자 : 6. 19(월) ~ 20(화), 8. 28(월) ~ 29(화)
  - 휴학대상자 :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 신청서류 :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소정양식1부), 휴학연장원(휴학연장서)
  -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1년추가 연장가능),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됨.
- 복학 및 재입학
  - 접수일자 : 6. 12(월) ~ 13(화), 8. 23(수) ~ 24(목)
  - 복학 대상자 : 일반휴학자로서 휴학기간 만료자 및 한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할 경우 교과과정 이수여부 지장이 없는 자, 병사휴학한 자로서 전역자 및 2000. 9월말 이전 전역예정자
  - 재입학 대상자 : 퇴학 및 학칙 제53조의 사유로 제적된 자로서 2000년 2학기 재입학 희망자(단, 학칙 제 52조 12호의 학사징계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 가능)
  - 구비서류
    -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
    - 군복학자 : 기전역자-복학원서 1부(소정양식), 전역증사본이나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자-복학원서 1부, 전역예정자 각서1부(소정양식)-제대후 전역증사본이나 병적증명서
    - 재입학자 : 재입학원서 1부

**교 무 처**

### 참사람봉사단 사회봉사 단원모집

2000학년도 여름방학 사회봉사 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대상 : 재학생, 교수, 직원
- 신청서 접수기간 : 6. 5(월)~9(금)
- 봉사활동기간 : 6. 26(월)~8. 31(목)
  - 봉사활동 내용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학점인정 : 여름방학기간 중 33시간 이상 봉사활동시 '사회봉사 1학점 Pass' 자유선택
  - 학점인정시기 : 2000학년도 2학기
  - 수강신청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 이수학점으로는 재학기간 중 2학점까지 인정함
- 접수처 : 동국참사람봉사단 (본관3층 학생복지실 내 ☎2260-3049)
- 봉사활동대상단체 : 약 60여개 단체 (봉사활동내용 : 500여개 프로그램)
  - 봉사대상단체와 봉사기간 및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 과정에서 봉사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 사람 봉사단**

### 교원자격무시험 원서접수

2000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 합니다.

- 대상자 : 2000년 8월 졸업예정자 중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자격
  -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 교육부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그 명단이 제출된 자
  - 교직과목 2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로, 교직과목 및 전체 전공 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B+)이상인 자
- 접수기간 : 6. 1(목) ~ 6. 2(금)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 교부 및 접수처 : 사범대 교학과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대상자는 유의하기 바람.

---

### 평생교육사과정 이수

2000학년도 평생교육사(구 '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 이수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신청자격 : 2000학년도 2학기 현재 2학년 재학생
- 자격종류 : 평생교육사 1급(구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 접수기간 : 6. 8(목) ~ 6. 9(금)
- 접수처 : 사범대 교학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범대 교학과로 문의 바람.

**사 범 대**

# 남북정상회담으로 본 국가보안법 **논단**

## 국보법, 더이상 필요없다

2000년 6월 13일의 남북정상(최고위급) 회담은 오랫동안 열어붙어 있었던 한반도의 긴장을 녹이고 평화통일로 가는 문을 열어 줄 봄의 전령사가 될 것인가?

지난 5월 25일, '남북정상회담과 민족사회의 과제'를 제시하는 시민·사회 공동토론회가 열렸다. 이어 214개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불교를 비롯한 7개 종단 또한 '온겨레 평화대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 평양학생 소년예술단이 방문하고 있고 머지않아 세계 일류 수준의 평양교예단이 서울의 하늘을 합성의 도가니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바야흐로 한반도에는 통일의 열기로 가득 찬다.

이즈음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 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1990년 1회 범민족대회 때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 고위급에 의해 서명되었을 때, 또한 1994년 7월 남북정상회담을 박두해 두었을 무렵 우리는 통일이 지적에 있는 줄 알았다. 그러한 분위기가 반전될 때면 남북간의 초긴장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남한 사회 내에도 레드 콤플렉스, 맥카시 선동이 몰아타친곤 했다. 그러한 레드 콤플렉스가 분단의 사생아라면 사생아의 후견인은 국가보안법이다. 이 후견인을 제거하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가 갈구하는 21세기 통일과 평화로 가는 길에 근접이나 하겠는가.

이제 국가보안법을 우리의 손으로 해체해야만 한다. 그 첫째 이유는 그것이 근대 국가의 꿈을 좌절시키는 악행을 저질러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일제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의해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 특히 1948년 분단국가로 수립한 이승만은 그 해 11월 국가보안법을 공포하여 4·3항쟁이나 여·순항쟁 등에서 분단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빨갱이'로 몰아넣었다. 그 후 오랫동안 국가보안법과 그 아류의 법들은 통일의 원실력으로써 근대국가 꿈의 지연시켜 왔다.

둘째 이유는 우리는 확실적인 통일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0년 현재 통일의 상을 그려보는데 있어 누구도 경제적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을 희망하지는

않는다. 평화가 보장되고 서로의 다양성·차이가 개성으로 인정되며 약자와 소수가 존중받는 사회를 꿈꾼다. 그러나 그런 국가보안법은 민중들로 하여금 반공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키도록 강요해 왔다. 그러한 반공이데올로기는 나와 조급한 달라도 상대를 빨갱이로 규정해왔다. 우리가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통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결함투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이유는 그것이 상위법인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기 때문이다. 50여년간의 분단과 반공이데올로기는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급급하였다. 역사를 바로잡고 다양한 통일 사회의 상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여러 세력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허용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상, 표현, 학문 및 예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만남을 발목 잡고 있기 때문이다. 월북인 유가족의 경우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왜 그



김기욱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런가? 국가보안법과 반공이데올로기의 끈적한 공포감 때문이다. 그 공포감은 우리 가족 중에 월북인이 있다고도 말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갔다. 국가보안법을 해체하든지, 최소한 독소조항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상봉 주장은 이산가족들에게 오랜 상처만 덧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세기, 21세기를 더 많은 평등과 평화가 보장되는 사회로 전변시켜야 한다. 50여년간 분단비용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물질·인적 자원을 소진시켜왔던가? 이제 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기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후진시키지 않을 장치를 민중의 손으로 만들고 요구해야 한다. 이제의 낡은 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에 질곡 당하는 부끄러운 민중이기를 거부하자.

## 한총련에게 남겨진 과제

제8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이희철·조선대 총학생회장) 출범식이 지난 26일부터 3일에 걸쳐 부산대학교에서 열렸다. 각 대학 학생들은 출범식 장소로 떠나는 것을 지지당하기도 했으나 출범식이 열린 부산에서의 집회는 예년과 달리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출범식이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이유로 여러 가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먼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한총련·범민련 이적규정 철폐 등을 요구하는 한총련을 탄압하는 것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있는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정권에서 '친북세력'이라고 규정된 한총련을 탄압하는 것이 회담에 이로운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8기 한총련 이적규정이 사회적으로 여론화되지는 않았지만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으로 규정된 한총련을 탄압하는 것은 '북'을 탄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노근리 양민학살 진상규명, 매항리 오곡 사건 등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 개정, 주한미군 철수 등 최근 사회에서 여론화되고 있는 사안들은 이미 한총련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것이다. 이런 한총련의 출범을 탄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소지가 있다.

이제, 한총련이 회복해야 할 것은 '대중성'이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백만학도의 자주적 대표조직'이라고 스스로 칭하며 자축하기보다 1만 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대한민국의 100만 대학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지 먼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전대협·한총련 14년의 역사는 분명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앞당겨오는 역할을 했다. 이제, 하나의 이론과 사상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확실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빠르게 변하는 학생들의 생각을 참으로 겸허하게 받아 들일 줄 아는 유연한 사고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민주·통일을 주장하면서 경직된 권위주의적 조직체계를 유지한다면, 훌륭한 관념적 논쟁에 다라 파가 갈라지는 모순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한총련이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진정한 대학생들의 대표조직으로 거듭나는 길일 것이다.

## 학생회의 자세와 역할

학생회는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시켜 나가는데 힘을 쏟아야 할 기구이다. 이러한 학생회 사업 전개는 그 주체가 바로 학생회 간부들로서 학생들의 변화하는 이해와 요구를 올바르게 수렴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신뢰를 쌓아나가는 간부의 자세와 역할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주캠퍼스에 산재한 많은 문제들을 살펴보면 현 경주캠퍼스 학생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성실하게 토론해 왔는지 의문스럽다. 가장 절실한 문제 해결에 늘 적당히 대처하는 자세를 견지해온 학생회가 내세우는 사업 계획이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타성에 젖은 사업 진행은 학생들의 요구와 불만을 당당히 대변해주며 그들의 중심에 우뚝 서기에는 부족했다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6일 치러진 최고의 의결기구이자 집행의 최고 기구인 전체 학생총회 준비 미흡이 가져온 결과와 총학생회 2차 재선거 무산의 한 원인이 된 학생회 간부 공신력 남용 의혹, 그리고 최근 학내에서 불거져 나오는 총학생회장 폭력 사건 등에서 학생회 간부들의 태도와 자세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학생회 간부들의 토론장인 중문위 회의에서는 토의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회의 참여 태도 역시 불성실하여 학생회 간부에 대한 여러 학우들의 불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회는 문제해결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런 논의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시급히 이를 공론화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각자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무사안일주의에 젖어 적당히 대처하려는 간부들의 태도와 인식은 모든 학생들의 강한 불신이 뒤따를 뿐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해결방안, 즉 학생회는 학생 참여 공간을 확대하고 학생회 간부들은 간부로서의 책임의식을 올바르게 인지할 때, 학생회는 진정한 학생들을 위한 모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민주노동총 총파업

# 허울뿐인 근로시간 단축 위원회

## 민노, 총파업으로 법적 근로시간 단축 관철할 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단병호, 이하 민주노동)은 오는 31일 △주40시간 근무 △구조조정 중단과 임금 인상 △조세개혁과 법정규칙 보호 등을 위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에 정부나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김창성, 이하 경총) 등은 민주노동의 총파업을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이 아니냐"며 "경제위기가 아직 극복되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난해 앞으로 열릴 총파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동총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인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한다.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확대는 장시간 노동으로 지친 근로자들의 삶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총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을 국회에 청원하면서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 중 7번째로 장시간 일하는 나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근무시간 단축과 주5일 근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민주노동의 손나구 대의협력처장은 "전 세계적인 경향에 맞추어 근무시간 단축으로 '장시간 노동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때다"며 "주 40시간 근무를 핵심과제로 삼고 총파업 결의를 일일대로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경총은 법정노동시간 단축과 실근로시간 단축과의 관계는 무관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경총의 최재황 홍보부장은 "우리 나라는 외국에 비해 휴가일이 많은데다가 유급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선호한다"며 "휴가사용이 외국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실근로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우리 나라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용자들의 의견은 결국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요구는 기업에 부담을 가져오도록 하며, 이제 막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 '일할 분위기'를 저해해 경기회복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노사정위원회는 총파업을 우려해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한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 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노사정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에

반발한 민주노동이 탈퇴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의 손나구 대의협력처장은 "정부는 여전히 모든 것을 노사정위원회에만 떠넘겨 놓은 채 뒤로 빠져 있다"며 "정부와 직접적인 교섭을 버리며 법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의 이번 총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지난 96.97년도와 다르게 근로시간단축을 타당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번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그것이 가지고 올 결과가 주목된다.

박지영 기자 starofeast@hanmail.net

복수전공제 개정			
구분	99학년도 입학자까지	2000학년도 입학자 및 해당학년도 복학자	비고
신청시기	2학년2학기 중	전공변경후 3학년 1학기초	
추가신청기회	없음	있음	
정원	기준정원의 100%	3학년 2학기초 해당 학년도 진여석 범위내 허가	학과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각대학에 재량권을 줌
편의생성적	3학년 편입생은 기회 없음	3학년 2학기초에 본교취득성적으로 비교	3학년 편입생의 신청허용
신청자격	2학년 2학기 재학생	전공결정을 받은자로서 최소 3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복학생포함)	편입생의 경우 1학기이상 이수한 재학생
정원초과시 결정기준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학점포함)의 평점평균(소수점 3자리까지 비교)	동일	
제한사항	캠퍼스간 교차 지원 불허, 비사범계열 학생은 교직이수자에 한하여 사범대학내 복수전공 허가, 예체능의 경우 해당전공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하여야 함	동일	
복수전공 이수 포기	수시(수강포기)	중도포기자는 복수전공 포기 신청서를 매학기초 소속대학 교과과에 제출	복수전공을 포기한 학생은 소속전공의 단일전공 이수자와 동일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이수시한	제1전공 졸업요건 충족시 까지	동일	
학위수여	이수시한까지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때 1장의 졸업증서로 동시수여	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1장의 졸업증서로 동시수여	
참고사항	1)1.2학년때 복수전공할 전공을 미리이수하면 복수전공 이수후기후 해당 복수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동일한 학부내에서 복수전공 이수시 공동과목은 두 개의 전공중에서 선택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교무처

전과(부)제 개정			
구분	1999학년도 입학자까지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비고
1. 명칭	전과(부)제	현행과 동일	보편화된 명칭을 유지하나 실제로는 전공변경의 의미
2. 신청 및 허가시기	1학년말 2학년 전공직전	2학년말 3학년 전공직전	시기변경
3. 정원	전일(학부)과 기준정원의 20%이내	전일(전공(학과) 기준정원의 50%이내 단, 사범대학내 학과는 20%이내	정원확대
4.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전과신청서,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학업이수계획서	동일	
5. 신청자격	1학년과정을 수료하고 누계 평점평균이 3.00인 2학년 전공예정자(상정포함)	4학기 수료한 3학년 전공 예정자중 누계평점 평균이 2.50이상(상정포함) 인자, 단, 편입학자 제외	지원자격 완화 즉, 2000년 이전입학자라도 동일학년에 재학시 지원가능
6. 대상학과	일부제한사항을 제외한 전계열 및 학과	동일	
7. 제한사항	①학의(예)과, 의(예)과로의 변경불가 ②주.02간의 교차지원 불가 ③컴퓨터공의 교차지원 불가 ④예체능계 지원시 실기시험 합격여야함 ⑤특기자 전형 입학자 변경불가 ⑥경찰행정학과 지원불가	①학의(예)과, 의(예)과로의 변경불가 ②주.02간의 교차지원 불가 ③컴퓨터공의 교차지원 불가 ④예체능계 지원시 실기시험 부과 ⑤경찰행정학과 지원불가	특기자 전형 입학생의 전공 변경 가능 (단, 체육특기자 제외)
8. 결정기준	1학년 성적과 면접으로 전형 면접부과평과 미응시는 불합격처리 ①일반계: 성적100%+면접 ②예능계: 성적70%+실기30%+면접 ③체육교육과: 성적60%+실기30%+교직인 적성검사점수+면접점수 ④사범계: 성적90%+교직인적성+면접점수	1·2학년 성적과 면접으로 전형 기타사항은 현행과 동일	
9. 동점자 처리	①취득학점(취득학점 많으나 우선) ②유사학과(여부(비유사학과 우선) ③출생년도(연소자 우선)	①취득학점(취득학점 많으나 우선) ②유사전공(여부(비유사전공 우선) ③출생년도(연소자 우선)	
10. 신청절차	신청서 및 관련서류작성→학업지도교수와 학정중심의(확인)→해당대학 교과과 제출	동일	
11. 면접전형 및 대상	2학년 1학기 개강전에 전공(학과)별로 시행 신청자 전원(추가신청 복학생 포함)	3학년 1학기 개강전에 전공(학과)별로 시행 신청자 전원	
12. 선발 확정	전형(면접(실기)후 학과심사 및 추천 → 대학장 →교무처장 심사→총장 확정 및 공고	전형(면접(실기)후 학과심사 및 추천→대학장 →교무처장 심사→총장 확정 및 공고	대학장 추천, 수시신청 변경(정장기간중), 동복류정신
13. 허가지 조차사항	신청서 부재, 수시신청 변경(정장기간중), 동복류정신	동일	
14. 교과이수	변경된 전공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모두 이수	동일	전과신청전에 미리자유선택으로 과목이수시 전공과 전공이수확정으로 전환되기에 미리 이수하는 것이 학위취득에 용이함.
15. 기타사항		구 전과제(2000년 이전)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한 학생이 유.복학후 3학년 전공시 전공변경 신청도 가능함.	

## 교무처

		영어회화(정원 15명)					Speaking & Writing (정원15명)	Screen English (정원40명)
구분		Beginning	Beginning	Inter-mediate	Inter-mediate	Advanced		
1차	1강좌 08:30-10:30	James	Joseph	Marcus	Paul	Ross	-	Michael
	2강좌 11:00-13:00	Crossman	Schouweiler	Ramirez	Treadway	O'Connor		LeBlance
2차	1강좌 08:30-10:30	David	-	Marcus	Roy	Bob	Darcy	-
	2강좌 11:00-13:00	Green		Remirez	Choi	Burjel	Shipman	

구분	AFKN & CNN (정원40명)	Video English for TOEFL (정원50명)	TOEIC7기반반 (각반정원50명)	TOEIC 종합반 (50명 정원)			
	1강좌 09:00-10:30	Listening (정원50명)	L/C	R/C			
	2강좌 11:00-12:30	(정원50명)	08:30-09:30	09:40-10:40			
1차	1강좌 08:30-10:30	김홍이	관관식	-	나용준	나용준	나용준
	2강좌 11:00-13:00	김홍이	관관식	-	나용준	이정일	나용준
2차	1강좌 08:30-10:30	김홍이	관관식	오금동	나용준	이정일	나용준
	2강좌 11:00-13:00	김홍이	관관식	오금동	나용준	이정일	나용준

강의기간 : 1차 : 2000.6.26-7.14(3주수업) / 2000.6.26-7.21(4주수업)  
2차 : 2000.7.31-8.18(3주수업) / 2000.7.31-8.25(4주수업)  
수강료 : 영어회화, Writing & Speaking, Screen English : 60,000원  
Video English for Listening, 토익 종합반, 토플 : 85,000원  
토익 기본반 : 45,000원/ AFKN & CNN : 65,000원  
접수기간 : 2000. 6. 5부터 선착순 마감  
접수처 :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해학관 1층) TEL : 2260-3471/0

## 언어연구교육원

동약론

폭력 대동제



“저 차 좀 봐, 완전히 찌그러져 있다. 무슨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저기 보이는 망치와 쇠파이프로 내리치는 건가 봐. 좀 과격하잖아 아니냐?”
지난주 경주캠에서는 입학대동제가 열렸다.

남북정상회담과 민족사회의 과제

“우리도 정상회담의 주인이다”

정상회담에 바라는 시민·민중 사회 요구 ... 통일 위한 다각적 접근 제시

반세기 동안 적대와 증오, 전쟁, 공포에 떨어진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오는 6월 정상회담은 7천만 동포를 위한 민족 운명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20세기 마지막 남은 냉전시대의 유산을 제거하는 인류사적 거사로 기록될지 모른다.

제와 시민·민중사회의 역사적 책무(강경주 사회학과 교수)

= 정상회담은 남북간의 화해, 협력, 평화를 이룩하여 통일로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

민중사적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통일의 과제가 있다. 2030년 경 중국의 GNP가 미국을 능가하면 동북아에 신냉전 체제가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외적 조건을 감안할 때 통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나, 내적 조건의 열악함으로 통일을 미루어야 하는 통일달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북한 미사일 문제나 이산가족 문제 등 전략주의와 한민중주의에 이용되기 쉬운 작은 사안보다 통일, 평화, 화해, 협력 등 장기적이고 큰 사안에 논의를 맞추어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민중 모두가 또 하나의 정상회담 주체로 승화하는 것이다.

▲ 토론내용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이김현숙 공동대표는 “통일사회는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양성 평등사회로 형성되어야 한다”며 “남북협상과 통일 과정에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민간단체 참여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최소한 30%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

남북 문화사업에 대해 유홍준 영남대 교수는 “문화교류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



는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며 “단발적 성격을 띤 남북 문화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는 “통일의 큰 틀을 규정하는 과정으로 국내적, 민족성방안, 국제적 차원에서 냉전의 벨트를 끊고 대화체널을 공식적으로 정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합법적인 남북한 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남북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국내법으로 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교육에 대해 최고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남한의 우월적 입장이 아닌, 있는 그대로 상대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통일교육을 행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법적 기구로 ‘평화·화해 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오는 6월 1일 ‘겨레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선언’을 열고 남북 정상과 미·일·중·러 주변 4개국 정상에게 메시지와 선언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리=김진미 기자 ring@dgu.ac.kr

▲ 발표문: 남북정상회담의 민족사적 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모의정상회담’이 오는 31일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북한학과 주최로 열린다.

북한학과 박순성, 고유환 교수의 지도로 남·북 양 정상에 임장을 정리한 대본에 근거해 남·북 정상들 미리 만나본다.

편집자주

남북정상 모의 가상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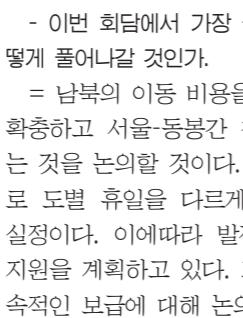
“이제 그만, 통일합시다”

남, 평화공존위한 평화선언 채택 ... 북, 사상 체제 인정한 연방제로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담당=이도용·북한3)

-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려 하는데 심경은 어떠한가.
= 이번 정상회담으로 지난 50년 동안 냉전체제의 한반도에 평화안착이라는 기대를 품게 됐다. 회담 성사여부를 떠나 이러한 노력이 세계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시금석이 되어 통일국가 건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담당=유 신·북한4)

-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협력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 남북의 이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서울-동북간 철도를 복구해 육로를 개설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대단한 전력난으로 도별 휴일을 다르게 해 에너지를 돌려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발전소 건립과 전력보충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비료와 새마를 운동의 지속적인 보급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 북한은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한 국가의 원수로서 선분리 대답하기 민감한 문제이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결코 남·북 협의에 의해서만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UN대표로서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남한의 전시 군사지휘권이 있는 것에 대한 북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쩔 수 없는 입장의 우리로서는 평화유지군으로 성격 변화를 꾀할 뿐이다.

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북측이 요구하는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입장은.
= 지금까지의 체제 유지에 필요악적인 부분이 물론 있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한다.

- 남한의 통일방안은.

= 취임 때부터 밝힌 대로 ‘민중통일 3단계 방안’이다. 이는 북측에서 제정하는 ‘고려연방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평화 공존·공영을 바라는 부분에서 접근하고 회담을 통해 평화선언문 채택을 위해 힘을 것이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통일회담을 통해 민족의 염원이 담긴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윤미 기자 junikiga@hanmail.net



남측정상(이도용·북한3)



북측정상(유 신·북한4)

-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심경은.

= 북조선에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조국통일회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탁통치와 다름없는 IMF체제 아래 어려움을 겪는 남조선 동포들이 인민이 중심되는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그 날을 위해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의 7·4 남북공동성명서 기치 아래 협

- 남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생각은.
= 남조선은 자주성이 결여되어 있는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타국의 군대가 자국에 주둔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 말인가. 주한미군이 틈스피리트 훈련을 할 때마다 우리 공화국은 모든 활동이 마비된다. 주한미군 문제는 자주성을 되찾는 측면에서 남조선이 굳건한 실천의지로 반드시 철수시켜야 한다.

-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북조선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은 반통일 악법이다. 남한의 국가보안법상 나는 괴뢰 집단의 원수이다. 나를 만나고 돌아가는 김대통령은 위법자가 되는 것인가.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 북조선이 제시하는 통일방안은.
= 우리의 통일 방안은 ‘고려민주연방제’이다. 서로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중앙정부를 두어 차근차근 통일조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을 개혁·개방시킨다는 명목으로 자본주의 사상을 침투시키려는 남조선의 흡수통일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표은영 기자 blueirain@dgu.ac.kr

전 공 결 정 제 개 정

Table with 5 columns: 항목 (Item), 현행 (Current), 변경 후 (After Change), 비고 (Remarks). It details changes to the admission and graduation criteria for the National Police Academy, including exam dates, subjects, and evaluation methods.

서울캠 교육 무척

Advertisement for the National Police Academy's National Bicycle Tour. It features a map of Korea showing the tour route, a list of dates and locations (e.g., Seoul-Osan-Pyeongtaek, Pyeongtaek-Chonan-Daeje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committee.



▲담배 한갑에 1백원... 누가 담배위에 동전 올리나! 지난 23일 정각원 앞 공터에 마련된 동국판 담배먹기.



▲골든징... 남느냐 떠나느냐 그것이 문제. 지난 23일 동국관 옆 나체밭에서 열린 퀴즈대회.



▲음악... 연극영상학부 새나기의 한마디. "여성도 공연중에 무대별로 다이빙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온방골 신중 스트레스 해소법... 친구의 불행은 나의 행복, 돈 1천원으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사진으로 보는 대동제

# 천년지기의 희망찾기... 다양한 볼거리·행사 위주 대학문화의 '상품성' 논란·지역주민과의 연계부족 아쉬워

서울캠 '천년지기의 희망 찾기'라는 기초아래 열렸던 목매대동제가 지난 24일 3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대 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중 '노예팀'은 인간을 상품화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음 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대동제는 'A-JAX'와 같은 댄스동아리의 춤 공연과 울해로 4

회를 맞이하며 자리를 굳히고 있는 '락 페스티벌' 공연 등이 큰 호응을 얻었다.

대동제 기간 동안 중앙도서관 앞에서 펼쳐졌던 학생복지위원회 주최의 대동동약장 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행사였다.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진 대다수의 학생들이 벤치에 둘러앉아 인절미떡을 나눠 먹고, 탄산 음료에만 익숙해 있던 학생들이 미숫가루의 담백함을 맛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동제의 아쉬운 점은 중구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예년의 경우, 지역주민들과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전통혼례식'은 기획단계에서 무산됐고, 폐막식 때 녹두사거리에서 펼쳐졌던 '중구지역 주민 노래자랑' 등은 폐막식 장소의 이전과 참여부진 탓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김은선 기자 eunsun@dgu.ac.kr

## '일탈' 획기적인 이벤트...일상으로의 탈출!

경주캠 온방골 입석대동제가 지난 26일 막을 내렸다.

대동제 첫째날인 23일 공개방송의 경우 지역 특성상 쉽게 접할 수 없는 행사로 본교 교직원과 재학생, 더 나아가 경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24일 '일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동아리 연합회 문화공연은 솔메리아, 유로스 등 학내 외의 다양한 동아리 공연으로 녹아원을 찾은 많은 학생들에게 지쳐 있는 일상에서의 탈출을 실감케 하는 획기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축제기간 내 문화거리에서 진행된 단체 줄넘기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데 더 큰 의미를

가졌다.

대동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백상연의 경우 댄스 페스티벌과 인디밴드(아프리카) 공연 등 많은 볼거리가 제공되긴 했으나 뒤늦게 내린 비로 대동제 마지막 날의 열기가 식어버려 관객들을 모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소라기자 choya@mail.dongguk.ac.kr



▶ 댄스, 댄스, 댄스... 폐막식 공연을 빛낸 울동패. 관객과 호흡을 같이하며 흥을 돋웠다.

▲ 제발... 지난 23일 동국관 앞에서 경찰행정학과가 벌인 물풍선 던지기 게임. 행여 자기에게 물풍선이 날아올까 긴장하고 있다.



음악의 허준... 발목이 아프시옵니까, 수지침을 놓겠소이다.



열광... 지난(24일) 대동제 폐막식에서 꽃다지의 공연에 환호하는 학생들.



온방골 DDR열풍... DDR은 식을줄 모르는 젊은이들의 열기를 파시하며 인기몰이를 했다.



서른여덟번째 전국 고교생 백일장 결과



입선자 명단

시부

장 원 : '새' 영광 해룡고(2) 김루미
우수1석 : '새' 안양예술고(2) 김유미
우수2석 : '새' 광주 경신여고(2) 한지연
가작1석 : '단오' 명덕외고(2) 반승아
가작2석 : '잔디밭 새의 발자국' 충북고(3) 이상혁
가작3석 : '새' 육천고 송영선

소설부

장 원 : '지하도' 부산동여고(2) 석재임
우수1석 : '숲' 충주여고(3) 권순주
우수2석 : '지하도에서 한 약속' 양천여고(2) 이영림
가작1석 : '지하도' 안양예고(2) 백진주
가작2석 : '지하도' 부산사직여고(3) 박귀희
가작3석 : '숲으로 가리워진 성벽' 배화여고(3) 조윤아

수필부

장 원 : '얕은 거리 위에 놓인 다리' 서현고(3) 김정민
우수1석 : '항아리' 복자여고(3) 염승숙
우수2석 : '항아리' 홍익대부속여고(3) 이소연
가작1석 : '목욕탕에서 생각한 거리' 밀양여고(2) 김현경
가작2석 : '거리' 연수여고(3) 김보미
가작3석 : '항아리' 민족사관고(2) 오유진

본선 심사위원

시부문

신경림(본교 문예창작학과 석좌교수·시인)
홍신선(본교 문예창작학과 교수·시인)
윤석성(본교 경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교수·시인)

소설부문

조정래(본교 문예창작학과 석좌교수·소설가)
이상문(본교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소설가)
장영우(본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문학평론가)

수필부문

정재봉(본교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동화작가)
양영진(본교 사회학과 교수·분사주간)
이종대(본교 문예창작학과 교수·희곡작가)

나는 한국문학의 태백

시 장원



김루미 영광해룡고등학교

새

나는 추적추적 나리는 빛속에
가느다란 빛가지 위로
자그마한 몸뚱어릴 얇은
이름 모를 새를 보았다.

회빛 하늘 내음 물씬하더니
모처럼 들려오는 단비 소리
무더웠던 가슴을 툭 자극한다.
말간 교정 사이로
두리번 거리던
귀와 눈은 기울어지고
교목 보호막 팻말 붙인
별곳은 흔드러지게 날리고 있었다.
고요히 함께 노래하던
새는 알고 있었던 것일까.
새끼 손톱만한 벼꽃잎이
하이얀 벼나무의 눈물임을

'강호에 빙이 길어 두님께 누웠더니...'
정철 시인의 관동별곡
오늘도 연이은 국어 수업
은유법, 대유법
한 줄이라도 더 분석하느라 여념없는
귀와 눈은 기울어지고
발맞춘 머리는 애써
무거운 돌니바퀴를 돌리느라 열중이다.
나를 뚫어져라 보는 저
새는 알고 있었던 것일까.
뜰에 짜인 시간 속에
시들어 가는 생각들의 눈물임을.

어느새

새는

내 절은 가슴 위로

자그마한 몸뚱어릴

얇고 있었던 것이었다.

심사평 시

시창작 행위란 시적 인식과 시적 진술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시적 인식의 미적 표현물이 곧 시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교생들의 학교생활 또한 그들의 삶이다. 생명력 없는 모호한 언어 대신 절실한 학교생활이 진실한 시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이러한 가까운 곳에서의 시적 인식과 진술을 심사기준의 첫 번째로 하기로 했다.

심사위원들에게 넘어온 수백편의 시작품 중에서 먼저 16편을 뽑았고 다시 신중한 논의 끝에 여섯 편을 입선작으로 결정했다. 송영선의 '새', 이상혁의 '잔디밭 새의 발자국', 반승아의 '단오', 한지연의 '새', 김유미의 '새', 김루미의 '새'가 바로 해당 작품들이다.

여섯 편 모두 독특한 시적 인식을 하고 있고, 시적진술 또한 능란하여 심사위원들

을 즐겁게 했다. 그러나 이중 한편의 작품을 장원으로 하는 데에 애로가 있었고 결국 김루미의 '새'를 장원으로 하기로 심사위원들이 전원 합의했다. 이 작품은 학교생활의 모습이 시적 안목에 절묘하게 포착되어 시의 재미를 잘 전해주고 있다. 답답한 교실 안에서의 시적 꿈꾸기가 참신하면서도 조금은 익살스러운 표현으로 드러나 있다. 자유의 상징인 새를 통해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자연스럽게 토로하고 있다. '새끼손톱만한 벼꽃잎이 하이얀 벼나무의 눈물임'은 특히 뛰어난 표현이다. 시의 말미에서 한 행씩 건너뛰어 전개한 시적 호흡도 당당하고 박력이 있다.

입선자 모두 정진하여 이 나라의 영광스런 시인들이 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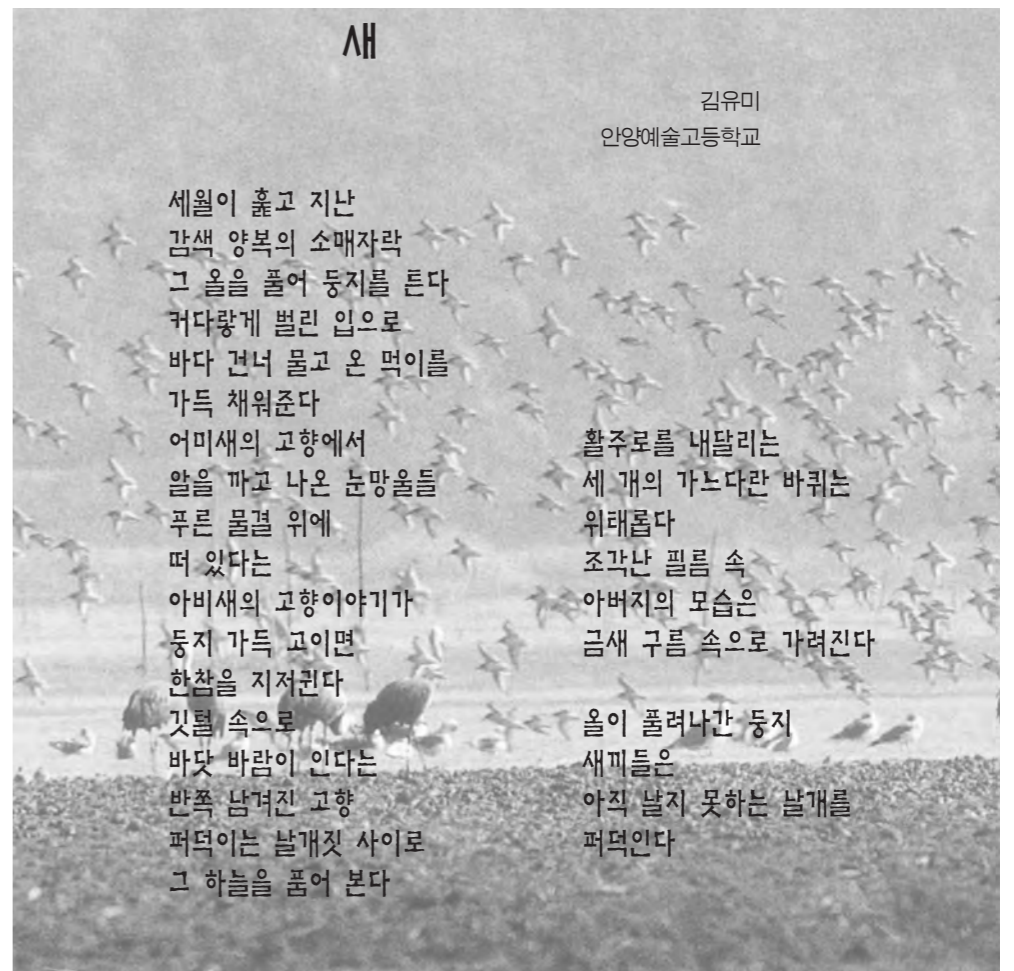
시 우수 1석

새

김유미 안양예술고등학교

세월이 훑고 지난
감색 양복의 소매자락
그 올을 풀어 등지를 틈타
커다랗게 벌린 입으로
바다 건너 물고 온 먹이를
가득 채워준다
어미새의 고향에서
알을 까고 나온 눈망울들
푸른 물결 위에
떠 있다는
아비새의 고향이야기가
둥지 가득 고이면
한참을 지저귄다
깃털 속으로
바닷 바람이 인다는
반쪽 남겨진 고향
퍼덕이는 발개짓 사이로
그 하늘을 품어 본다

활주로를 내달리는
세 개의 가느다란 바퀴는
위태롭다
조각난 필름 속
아버지의 모습은
금새 구름 속으로 가려진다
올이 풀려나간 둥지
새끼들은
아직 날지 못하는 발개를
퍼덕인다



# 산맥으로 간다

## 동대신문사·문예창작학과 주최 제38회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 소설 장원



석재임

### 지하도

따스한 햇살과 함께 향긋한 커피 냄새가 내 가슴 속으로 파고 든다. 언제 일어났는지 아내는 벌써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다. 잠은 벌써 깨었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본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아내가 내게와 달콤한 목소리로 아침을 알려 줄 것임을 알기에...

“일어나세요. 지금 일어나셔야 해요. 오늘 새로 수습 기자들이 온대면서요.”  
언제 들어도 자상한 아내의 목소리에 방금 일어난 척 해 본다. 그렇기 오늘은 수습 기자들의 첫 출근 날이다. 하지만 조금 여유를 부리며 집을 나선다. 주차장으로 가는 도중 잠시 집을 둘러다 보았다. 역시 아내는 아직도 베란다에 서서 나를 배웅하고 있었다. 운전해서 신문사로 가면서 문득 나는 참 행복한 놀이단 생각이 들었다. 어려서부터 내 인생엔 별로 큰 고난이 없었다. 비교적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대학시절에도 아르바이트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성적도 전교 5등 밖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졸업 후에도 취직 걱정이 지금 신문에 입사했으니 풀려나고, 올 봄에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까지 했다. 처가 역시 장인이 사업을 하는 부유한 집안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벌써 회사 앞에 도착했고 서둘러 올라갔다. 자리에 앉아 오늘 아침 조간을 읽고 있으니 국장님이 새로운 얼굴 한 명을 데리고 오셨다. 수습이라...  
“자 오늘부터 우리 막내가 된 정하섭씨입니다. 정하섭씨 사수는 김인석씨니까 잘 가르쳐 보시고, 오늘 조간 봤죠? 갈수록 우리 판매 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래서야 원. 아무튼 이따가 회의 시간까지 특종이 될 만한 아이템 하나씩 생각해 보고, 김기자? 정하섭씨 잘 교육 시켜봐.”  
하필 내가 수습을 담당해야 하나. 우리 신문사는 수습기자랑 선배기자랑 한 팀이 되어 한 달 동안 기사를 작성하고 평가한다. 물론 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 한 수습은 피사 조치고 선배기자의 인사고과 또한 별로 좋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하필 이번 수습을 내가 담당하게 되다니. 제발 돌머리가 아니길 빌 뿐이다.  
정하섭이란 친구에게 몇 가지 유의사항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전회의 시간이 되었다. 회의실로 가서 허구헌날 외쳐대는 그놈의 특종거리에 대한 얘기를 또 듣고 있는데, 아무말 없이 듣고만 있던 정하섭이 갑자기 말문을 열었다.  
“저, 국장님 제가 아이টে임을 하나 내도 되겠습니까?”

“자네가? 그래, 한 번 말해 봐.”  
“네, IMF체제에서 벗어났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전국에는 실업자나 부랑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써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사는 지금까지도 많았지 않나? 그런건 이제 특종이 될 수 없어.”  
“아닙니다. 기존의 기사는 그저 수박 겉핥기 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우리가 직접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것을 리드물로 올리자는 겁니다.”  
“오, 그거 괜찮겠군. 그럼 자네랑 자네 사수가 김 기자지? 둘이 한 번 추진해봐, 우리도 특종 한 번 터뜨려 봐야지.”

아니 이게 웬 날벼락이야? 수습 때문에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고생을 하게 된 것 같다.  
“김기자, 고생 꽤나 하겠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인사고과 한 번 올려봐, 누가 아냐? 나 처럼 보너스 받을지?”  
봄에 특종 한 건 터뜨려 보너스를 받고는 어찌에 힘을 잔뜩 주고 다니는 이기자였다. 생김새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녀석이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 어쨌든 이미 결정난 일 어떻게 할 지 방향 설정부터 해야겠지. 정하섭 저 친구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연신 싱글거리며 다가왔다.  
“선배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지하도가 좋을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는 아무래도 잠자리 없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찾는 장소가 거기잖아요. 미물 것 없이 오늘부터 시작하죠?”

아, 이 친구는 벌써 계획까지 다 세워둔 모양이다. 좋아, 이 친구 뭔가 자신있는 모양이니 일단 믿어보고 나중에 기사 작성만 잘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지, 그럼 일단 집에 연락하고 웃도 좀 같이 입어야겠지?”  
“네,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아내에게는 출장이 있어서 당분간 집에 못 가겠다고 해두고 언니네에 가서 지내라고 했다. 소형 녹음기도 챙겨두고 어느 정도 준비를 끝내 놓고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으니 정하섭이 도착했다. 어디서 구했는지 정말 누가 봐도 거리의 부랑자 모습이었다. 나에게도 웃을 건네며 같이 입으라고 했다. 오늘부터 김인석 스타일 완전히 구기게 됐다.  
우리가 신문사를 나와 가장 처음 한 일은 지하도 계단에 앉아 구걸을 하는 일이었다. 정하섭은 꽤 능숙하게 했지만 난 도무지 고개도 들 수 없었다. 마지못해 나는 장님 흥내를 내기로 하고 얼굴을 반쯤 덮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썼다. 그리고 꼬박 6시간을 앉아 있었다. 허리도 아프고 그보다는 배가 너무나도 고팠다. 하지만 지갑은 신문에 두고 나왔고 내

가 가진 것이라곤 구걸해서 번 돈밖에 없었다. 돈을 헤아려보니 오천원이 조금 넘었다. 정하섭도 배가 고팠던지 나에게로 다가왔고 저녁을 먹자고 했다. 우선 화장실부터 가자고 했다. 지하도 아래로 내려가는 데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오더니 다짜고짜 우리를 내동댕이 쳤다.  
“이 새끼들이 누가 여기서 구걸하래? 여긴 내 구역이야. 다시 한번만 여기서 얼정대면 둘 다 확 죽여 놓을 줄 알아. 알겠어?”  
얼굴이 험상궂은 남자 한 명이 그렇게 외치더니 나머지 서너명이 우리를 둘러싸고 발로 밟고 하루 종일 번 돈 전부를 빼앗아 갔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저녁도 굶은 채 잠자리를 찾아 어슬렁 할 수 밖에 없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 세웠다.  
“어이, 거기 젊은이 둘, 신참인가 본데 일루 와.



여기 자리 있으니...”  
웬 노인이네가 부른 것이었다. 답수룩한 수염에 더러운 냄새가 이런 생활을 한 지 오래 된 듯 했다. 그런데 웬지 모르게 너무나 낯익은 목소리 같았다. 아니지, 내가 저런 노인네를 알 리 없으니 내가 잘못 들은 것일 것이다. 내가 생각해 빠진 동안 정하섭은 벌써 그 노인네에게 쪼르르 달려가 있었다.  
“아이쿠, 고맙습니다. 어이 김형도 일루 와요. 여기 신문지도 있어.”  
김형? 어쭙 수습 주제에, 나중에 신문사 가서 혼내기로 하고 어쩔 수 없이 다가갔다. 그런데 내가 다가가자 그 노인네는 눈이 갑자기 커졌다. 왜 놀라지. 어쨌든 나는 주머니 속의 녹음기 작동 버튼을 몰래 누르며 하섭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언제부터 여기서 주무셨어요? 자식 없어요? 저는 두달 전에 회사가 부도나서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제법 그럴 듯하게 말을 풀어 놓는군.  
“시끄러 입 닫치고 잠이나 자.”  
노인네 성깔하고는, 꼭 우리 장인 영감 같군. 그래, 그 한바탕만 던져 놓고 돌아누워 버려서 할 수 없이 오늘은 포기하기로 하고 자리에 누웠다. 차가운 바닥의 기운에 뻣속까지 얼어 붙는 것만 같아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세웠다. 옆에서 자는 정하섭은 지네 집 안방인양 코까지 골고 있었다. 새벽녘에야 잠깐 푹잠이 들었다. 옆에 노인네가 나를 깨웠다.

“언능 일어나. 역무원들 오기 전에 나가야 해.”  
쫓기듯 그렇게 일어나 노인네를 따라 어디론가 갔다.  
“지금 어디가는 겁니까?”  
“비력질을 해 먹더라도 배가 불러야지. 그리고 자네 둘은 젊고 힘도 좀 쓰것으니 구걸 할 생각 말고 아침먹고 공사장 같은 데라도 가봐.”  
노인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무료 급식소였다. 밥이라고 주는 것이 콩나물국에 밥과 김치가 전부였다. 평소같으면 거뜬해도 안 봤겠지만 어제부터 굶은 탓에 먹지 않을 수 없었다. 식사를 하고 노인네와 헤어져 정하섭을 따라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내는지 부랑자들을 찾아 다니며 제법 쓸만한 인터뷰 몇 개를 따냈다. 그렇게 그러자려 하루를 보내고 어제 잤던 자리로 돌아왔다. 노인이 먼저 와 있었다. 오늘 구걸한 돈으로 샀는지 소주 한 병을 사다가 과자 한 봉지랑 마시고 있었다. 우리가 오자 아는 체를 하며 한 모금 마시라고 했다. 그 더러운 입이 닿은 걸 마시라니. 그런데 정하섭이 친 구는 비위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받아 마시는 거다. 할 수 없이 나도 한 모금 마셨다. 그렇게 셋이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고 자리에 누웠다. 소주 덕분에 몸에 열이 올라 어제보다는 좀 덜 추운 듯 했다. 잠든 줄 알았던 노인이 말문을 열었고 나는 재빨리 녹음기의 작동 버튼을 눌렀다.  
“자네가 어제 내가 어쩌다 여기서 사느냐고 물었지? 자식이 없느냐고... 자식, 물론 있지. 금이야 옥이야 곱게 키운 딸자식이. 고작 열살 때 지에미 먼저 보내고 나혼자 키워 올 봄에는 시집도 보냈지. 신문사 기자를 하는 남자가 집안 형편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딸자식 시집도 잘 보냈고 사업도 그러저럭 잘 되서 별 걱정이 없어 내 노년에 팔자패는 구나 했지. 근데 6월달에 자네들도 알거야. 혜성그룹, 혜성 그룹이 부도가 났잖은가? 우리 회사는 거기서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데 믿었던 거기가 부도가 나 버렸으니, 어쩌겠나. 직원을 월급은 커녕 빚쟁이들한테 쫓겨 이리 사네.”  
“그럼 따님께서는 연락 하셨어요?”  
“그 아이한테는 말했지만 지 남편한테는 입도 뻥긋 말라고 했어. 자, 시간도 늦었는데 이제 그만들 자.”

노인네 그냥 사위한테 말하면 될 것을 사서 고생하고 있군. 근데 우리 장인을 사업은 안전하다고 했지? 어이쿠 내가 우리 장인 저 따위 노인네랑 비교하더니 장인이 알면 그 성질에.....  
오늘 아침도 그 노인네가 우리를 깨워 그 급식소로 가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어디로 갈까 하섭과 의논하고 있는데 간 줄로만 알았던 노인네가 다가왔다.  
“이따 두시까지 그 전철역으로 와. 내가 특별히 두 사람 점심 사줄테니.”

비력질해서 사는 주제에 우리 밥을 사주겠다고. 저 노인네 지하도에서 사는 게 이제 편한가 보군. 어제처럼 몇 군데 다니며 자료 수집을 하고 내일은 집에 가기로 하고 노인네를 만나러 갔다. 우리를 중국집에 데려가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사먹이고는 나중에 보자며 어디론가 갔다.  
밤이 되어 잠자리로 찾아 들었다. 오늘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니 조금 편해지는 듯 했다. 그런데 옆 자리의 노인네가 오늘따라 험스해 보이고 자꾸만 기침을 해댄다. 늙은이가 한데서 자 감기가 걸렸나 보다 생각하고 잠이 들었다. 누군가가 나를 발로 걷어쳤다. 깨어보니, 역무원이 나를 깨우고 있었다. 노인네가 항상 역무원이 오기 전에 깨웠었는데 옆 자리를 보니 아직도 자고 있다. 깨우려고 몸을 흔드는데 몸이 나무토막같이 차고 딱딱하다. 코에 귀를 갖다 대어 보았다. 숨을 쉬지 않는다.  
“여봐요.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역무원 몇 사람이 달려왔고 곧 경찰이 왔다. 노인네 시체를 가져가며 정하섭과 나도 파출소에 따라갔다. 우리는 취재하기 위한 기자라고 말하고 신문사와 통화한 후 파출소에서 나왔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시체를 보더니... 그것보다 밤새 시체와 같이 잤을 생각을 하니 몸서리가 쳐 진다.  
내일부터 녹음내용으로 기사를 쓰기로 하고 정하섭과 헤어져 집으로 왔다. 아내는 사촌언니네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지 집은 비어 있었다. 우선 며칠간 씻지 않아 온 몸을 간질질러 샤워부터 했다. 샤워하고 나와 맥주를 한 잔 마셨다. 혹시 그 동안 연락온 것이 있는지 핸드폰 음성 사서함을 들어 보았다. 한 개의 메시지가 있었다.

“여보, 아버지가 돌아 가셨대요. 듣는대로 빨리 큰 아버지댁으로 오세요. 정식이 오빠네에 빈소 차렸어요.”  
아내는 울먹이며 기운없는 목소리로 곧 쓰러질 것만 같았다. 나는 아내의 사촌오빠라는(장인의 제사를 맡기로 되어있는) 정식이라는 사람 집에 전화를 했다. 아내는 이미 기절해서 병원에 있다고 했다. 알았다고 곧 가겠다고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 정경하던 양반이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집을 나서기 전 국장님께 전화를 드려 장인의 부고를 알리고 기사는 상을 치른 후 마무리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하루에 두 명의 죽음을 접하니, 오늘은 참 재수가 없는 날인가 보다.

### 심사평 소설

소설이 수필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학생들의 작품을 읽는 동안 이런 기본적인 의문을 갖게 됐다. 소설은 소설다운 틀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구성미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다.  
모두 긴 편의 소설 가운데 여섯 편을 골라내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대부분의 소설들은 소설의 기본적인 형식을 잃어버린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선작으로 뽑은 석재임의 소설은 구성미가 탄탄하다. 후배 수습기자의 교육과정을 통해 지하도에 접근하는 장치도 반전을 선택한 뒷부분도 좋았다. 하지만 좀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 동대신문사·문예창작학과 주최 제38회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입상작

#### 소설 우수 1석

#### 순

권순주  
충주여자고등학교

"여기가 어디야?"  
따가운 햇살이 내 눈을 파고 들었다. 갈 곳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 거렸지만, 보이는 건 전봇대만한 고목과 커다란 돌덩이를 뿐이었다.  
"그러게 이런 뉘 왜 오제?"  
"내가 오자 그랬어? 조그만한 게 누나한테 맡길 마다 반말이야!"  
동생은 갑자기 커진 내 목소리에 놀랐는지, 고개를 휙 돌렸다.  
엄마가 분명하다 몇 달 전부터 동생과 내가 한 마디도 나누지 않자, 우리를 화해시킬 생각으로 여기 보낸게 틀림없다.  
그리고 보니, 벌써 두 달 전의 일이다.  
"엄마, 다녀 올 테니까, 잘들 놀고 있어."  
일요일 오후, 엄마는 장을 보기위해 나갈 채비를 차리셨다. 그리고 빠짐없이 나와 동생에게 당부지 말고, 잘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알았어! 걱정마! 걱정마!"  
나의 당연하다는 식의 말투에 엄마는 눈을 살짝 흘기셨다. 나는 살짝 미소를 보이며, 동생의 목을 끌어안아 보였다.  
나와 동생은 점점 놀이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얼마까지 못하고, 진짜 전쟁이 되어버렸다. 여느때 처럼...  
"너 누나한테 까불어!"  
안수에 서로의 무기를 하나씩 들고, 동생과 나의 신경전은 시작되었다.  
일남 삼녀중에서 나는 셋째 딸이고, 동생은 막내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동생과 싸우면, 엄마는 '누나 나가 내가 양보해줘'라고 하고, 언니들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네가 잘 해야지'한다.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었는지 모르겠다. 동생은 말쑥하다 나를 알잡아 보는 듯 했고, 나 또한 동생의 사소한 행동에도 크게 열을 올리곤 했다.  
"두 살밖에 차이도 안나면서!"  
"뭐라구? 조그만한 게!"  
동생이 나와서 나이차를 우습게 보는 게 제일 싫었다. 나는 조건 반사적으로 동생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그러자 동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에게 덤벼들었다. 끝내 우리의 싸움은 주먹질로까지 번졌다. 동생은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다. 동생의 그런 주먹이 배에 와닿자,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건 멍들 배 때문이 아니라, 멍들 내 자존심 때문이었다. 분했다. 난 누난데, 동생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다.  
그때부터 동생과의 담은 한 칸 두 칸 쌓여져, 이전 고개를 쳐들어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왔다.

이 잃어버린 길을 찾아 내어, 몇 달 전에 구겨진 나의 누나라는 이름의 자존심을 되찾고 싶었다.

"엄마! 나 컴퍼스 가져가야돼!"  
거울을 응시한 채 머리를 빗으며 통명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자연스럽게, 저쪽 옆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 동생에게 말했다.  
"컴퍼스 있으면, 누나 좀 빌려줘!"  
동생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없어!"  
라고 대답하곤 자기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동생이 들어간 문을 한 번 훑어보고, 학교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신을 신기위해 나간 현관 앞에는 붉은 컴퍼스 하나가 놓여있었다.  
"빨리 길 좀 찾아봐!"  
잔뜩 짜증이 난 목소리로 동생이 투덜거렸다. 나는 더 투덜거리는 말투로 말했다.  
"그런건 누나가 해야지!"  
"치~"

동생은 편해서 좋았다. 삶은, 나도 그렇다. 이 잃어버린 길을 찾아 내어, 몇 달 전에 구겨진 나의 누나라는 이름의 자존심을 되찾고 싶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길은 더 멀고 아득했다. 엄마와 언니들은 다정하게 손잡고 나타날 우리들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법을 선택하는데 실수한 것 같다. 이 상황에선 더 나빠질 일을 밖에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아유! 나 더 이상 못가겠어!"  
동생이 두 발을 움켜쥐어, 땅바닥에 주저 앉았다.  
"웬 엄살이야?"  
"엄살 아냐!"  
동생의 눈엔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것 봐!"  
동생은 신을 벗고, 양발을 내려 통통 부은 발을 보여주었다. 엄살이 아니었다.  
"너는 태권도도 했으면서, 이 정도도 못 버티나?"  
갑자기 속이 상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화를 냈다. 그러자 땅위로 작은 말발굽이 두 어개 떨어졌다. 아주 어렸을 적에, 동생이 자전거 체인에 손가락을 끼인 적이 있었다. 그때 동생은 정말 많이 울었다. 어쩔, 저렇게 많은 물이 눈안에 어떻게 다 들어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말이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이다.  
"새내 자식이! 울진 왜 울어! 기집애같이!"  
그제야, 울음을 조금 그쳤다.  
"봐봐! 내가 주물러 줄게!"  
나의 상냥해진 태도에 조금 놀란 듯한 동생은 아무말 없이 조용히 다리를 내밀었다. 그런데, 나를 더 놀리게 하는 일이 생겼다. 동생의 종아리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것이었다. 밤인은 나다. 동생과의 놀이진 담이 내 신경 세포 속에서 구석구석으로 밀려나고 있을 때쯤이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동생이 미워 보이던지....., 나의 그런 기분은 마침내 일을 저질렀다.  
언니들과 밖에서 신나게 뛰어 놀고 돌아왔을 때, 안방에서 대자로 누워있는 동생이 보였다. 순간 나도 모르게 동생의 다리를 밟았다. 아니, 그건 핑계다. 난 분명히 고의였다. 지금도 그때의 내 얼굴이 생생히 기억나기 때문이다. 내가 웃고 있었다. 나는 얼굴에 와닿는 바람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열을 느꼈다. 그런 나의 얼굴을 들지않기 위해, 머리카락을 늘어뜨렸다.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말하지! 비보같이 발이 이렇게 될 때까지 걸으면 어떡하냐?"  
동생은 남아있는 눈물을 닦으며,  
"엄마가 걸다가 쉬면, 다음에 다시 걸기가 더 힘들다고 그랬단말야!"  
"치! 엄마말은 잘 들네!"  
나는 뾰루통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한 심분, 이십 분이 흐른 것 같다. 동생이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누나 이제 가자!"  
그런 동생의 모습이 대견해 보였다.  
"이제 괜찮은거야? 아직 아프면 더 쉬었다가 가도 괜찮아!"  
"됐어! 빨리 가자. 엄마랑 누나들이 기다릴거 아냐!"  
나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억지로 참았다. 꼬맹이인줄로만 알았는데 많이 자란 것 같다.  
"왜 웃으려고 그래?"  
"아니다 가자!"  
몇 분을 쉬어서인지 훨씬 힘이 덜 들었다. 아니, 어쩌면...  
한참을 서로 말없이 기다리다가,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누나가 준 사탕 맛있었는데... 지금은 사탕 없어?"  
"사탕?"  
동생은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에 다녔다. 그래서 학교에서 마주치는 일도 많았다.  
"야! 이거 먹어!"  
같은반 친구가 노란 사탕 하나를 먹으라고 건네 주었다. 그 순간 나는 운동장에서 뛰어 놀고 있을 동생이 떠올랐다.  
"고마워! 잘 먹을게!"  
친구에게 큰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하자마자 나는 운동장으로 뛰어 나갔다. 운동장에는 유치원생



으로 보이는 아이들 대어셋명이 자기 발보다 더 큰 축구공을 차며 놀고 있었다.  
"민기야!"  
그 쪽을 향해 무작정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골대쪽에서 한 아이가 이쪽으로 뛰어 왔다.  
"왜 누나!"  
왜냐고 묻는 동생의 눈은 잔뜩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다. 내가 친구들이 주거나 선생님이 주셔서 생긴 먹을 것들을 골라 동생에게 가져다 주곤 해서 일게다.  
"이거 먹어! 우리반 친구가 준거야!"  
"와!"  
동생은 두 손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 나의 사탕을 받았다. 그러곤 그 자리에서 뜯어 입에 물었다. 동생은 활짝 웃어 보이며 고맙단 말을 대신하곤 했다. 그 깨끗한 미소는 가끔가다 나의 가슴을 뭉클케 나도 또한 미소짓게 했다.  
"사탕 먹고 싶어?"  
"없으면 말구!"  
웃음이 가득한 말투로 동생이 대답했다.  
"뚝뚝뚝!"  
그때였다. 어디선가 경운기 소리가 들렸다.  
"어!"  
동생과 나는 누가 먼저랄것도 없이 마주 보았다.  
"저쪽같은데!"  
나와 동생은 내가 가리킨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우리의 걸음걸이가 한층 빨라져 있었다.  
"아이쿠!"  
동생이 조그마한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괜찮아? 어디 다친데 없어?"  
영덩이의 흠을 털며 일어나는 동생을 부축하며 물었다.  
"다친데 없어! 돌에 걸려서 그래. 빨리 가자!"  
동생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느새 동생과 나는 손을 잡고 있었다.  
"와!"  
드디어 숲 밖으로 나왔다. 길은 없었지만, 눈앞에 밧과 도로가 보였다.  
"와하하하!"  
너무 너무 기쁘다. '이젠 살았구나!' 란 말은 이럴 때 쓰기 위해 생긴 것 같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길 잃어 버렸던거 아냐?"  
놀란 목소리로 묻는 엄마를 향해 동생이 빙긋이 웃어 보였다.  
"아이쿠! 큰 일 날뻔했네!"  
"잃어버렸었는데, 누나 덕분에 잘 찾아 온거야!"  
조금 놀라며 동생을 쳐다봤다. 동생은 한쪽 눈을 살짝 감았다. 내 얼굴과 엄마, 그리고 언니들의 얼굴에 하나둘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게 5년 전의 일이다.  
지금 아빠, 엄마, 나, 그리고 동생과 함께 타시 그 숲! 그 산으로 향하고 있다. 햇빛은 따사로운 온기를 풀어내어 주고, 바람님은 살결을 간지르는 달콤한 바람을 내뿜고 계신다. 그 사이를 아빠, 엄마 그리고 나의 동생과 달리고 있다.  
그 때 그 산을 향해...

#### 수필 장원

#### 얕은 거리 위에 놓인 다리



김정인  
경기서현고등학교

멀리서 빨간 십자가가 보인다. 우리 동네에는 어울리지 않게 제법 크고 좋은 교회에 있다. 아버지께서 그 교회에 경비 일을 하시게 된 지 거의 한 달이 되어 가지만 내가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 손엔 안경이 들려있다. 요즘 들어 건망증이 심해져 신 아버지가 있고 가신 것이 다 내키진 않지만 전제 드리기 위해선 교회로 가야 했다. 어둔 길 하나 밝혀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늙은 눈. 값싼 만큼 무거운 이 안경이 왜 이리 내 마음을 흔들며 놓는 것일까.  
길이 꽤 어둡다. 시골 동네라서 몇 개 안되는 가로등 사이의 거리는 멀다. 참아 다 벗겨진 채 눈물만 그림그린 담은 것 같은 가로등 하나가 눈에 띈다. 저 하나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저기 외롭게 서 있어야 할까. 조금 가다보니 작은 개울이 보인다. 알아서 물만 재주껏 밟고 지나가면 발목도 찢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 튼튼하지도 않은 나무다리가 놓여 있다. 굳이 저 다리가 놓여 있는 이유가 뭘까.  
밤을 때는 쉽게만 느껴지던 길이 어둠 속에선 위험한 것만 잔뜩 깔린 것처럼 조심스럽다.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길을 혼자 걸어 다니셨을 아버지가 떠오르니 돌 하나가 가슴에 쾅겨 들어오는 것 같다.  
교회 문 앞에 멈춰서 서 있다. 조금 후의 어색한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 아버지와는 꼭 필요한 대화만 나누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명함 유리문 안을 배품히 들여다보았다. 너무 큰 교회 안에 너무나 작은 아버지가 계셨다. 마치 세상 가운데 홀로 놓여있는 듯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저 텅 빈 교회 안이 내 울음으로 가득 할 수 있다면 지금껏 참아 온 눈물을 다 흘려버리고 싶었다.  
모든 게 다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학급임원이 되어도 미움만 샀을 때, 서울에서 집을 잃고 이별도 생경한 경기도의 귀퉁이로 이사왔을 때도, 원망을 가득 담은 채 더 냉담해진 모습으로 아버지를 대했다. 돌덩이 같은 내 자신이 나는 강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믿고 있었을 때, 대개 무엇이 강해졌다는 거지 사실 더 외로워지고 있었다. 아버지를 외면하면 내 원망의 한 부분이라도 보상받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 세상에 혼자 뿐이란 생각에 갈수록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었다. 잦은 무단 결석과 외출로 나는 학교와, 모범생이라는 틀 안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정학 처분을 받던 날, 의외로 아버지가 오셨다. 평소

정보게이트 138-050 서울서강구역상동 529-1 E2W9F 88  
전화 509-9904(대) 팩스 539-5708  
INFOGATE 하이텔:INFOGATE 천리안:나우누리:GATEINFO

# 정보게이트에는 뭔가 특별한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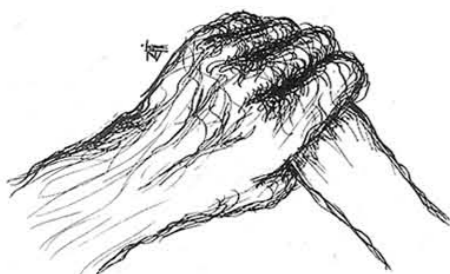
<p>남기범 외 저 624쪽/4X6배판형</p>	<p>유승철 외 저 432쪽/4X6배판형/CD1장포함</p>	<p>정희용 외 저 424쪽/4X6배판형/CD1장포함</p>	<p>인은희 외 저 424쪽/4X6배판형/CD1장포함</p>	<p>오지영 외 저 496쪽/4X6배판형/CD1장포함</p>	<p>서금주 외 저 400쪽/4X6배판형/CD1장포함</p>	<p>오정용 외/전면강사 352쪽/국배판형/CD1장포함</p>	<p>김상배 외 저 448쪽/4X6배판형/CD1장포함</p>	<p>김도성 외 저 672쪽/4X6배판형/CD1장포함</p>	<p>유경년 외/전면강사 288쪽/4X6배판형/CD2장포함</p>
<p>이희선 외/전면강사 512쪽/국배판형/CD1장포함</p>	<p>박상욱 외 저 472쪽/4X6배판형/CD3장포함</p>	<p>박상욱 외/전면강사 212쪽/4X6배판형/CD2장포함</p>	<p>신지영 외 저 416쪽/4X6배판형/CD1장포함</p>	<p>조원태 외/전면강사 232쪽/4X6배판형/CD1장포함</p>	<p>정희용 외 저 688쪽/4X6배판형/CD1장포함</p>	<p>김진선 외 저 496쪽/4X6배판형</p>	<p>강상근 외/2도 360쪽/4X6배판형</p>	<p>이승년 외/전면강사 200쪽/4X6배판형/CD4장포함</p>	<p>이승년 외/전면강사 240쪽/4X6배판형/CD4장포함</p>

### 동대신문사 문예창작학과 주최 제38회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입상작

엔 살거운 말 한마디 잘 하지 않으면 분이 나를 위해 울면서 사정하였다. 모두 당신 탓이라고. 충격이었다. 무섭고 엄해서서 불꽃이 튀길 것 같아 꼭 바로 올려 보지도 못할 것 같은 그 큰 눈으로 오지 날 위해 세상의 죄스러움을 다 담아 가지고 눈물을 흘리었다.

어지럽다. 이전 어떻게 해야 하지. 무심결에 주머니 속을 뒤지니 편지밖에 나오지 않는다. 오는 길에 유유나 빵이라도 좀 사올 걸 그랬다. 나는 왜 이리도 무심결한 것일까.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는 얼른 달려 오셔서 문을 열어주었다. 이 일을 저토록 긴장하시면서 하고 계신 것일까. 작은 소리에도 흠칫하는 아버지 어깨를 보았다.

"어. 정민이구나."  
"안녕 드리려구요..."  
아버지의 얼굴이 별장게 상기되더니 안경을 반으시지도 않고 내 손을 꼭 마주 잡으셨다.



"어두운데 오지 말지 그랬나."  
손에 눈물처럼 따미 축축하게 배어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안경이 아니라 내가 아니었을까. 왜 진작 이렇게 찾아 올 생각을 못했던 것일까. 어디서나 환한 빛이 비춰 들어오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면서 뼈마디만 앙상하던 의로움이 사그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교회 안에도 세상에 마치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은 느낌. 말동무도 없으신 아버지가 세상 속에서 느껴오셨을 거리감이 내 감정처럼 울렁거리며 복받쳐 올라왔다. 내 눈으로 확인한 아버지의 왜소한. 그리고 절실한 의로움... 사람이란 감정은 때론 미움보다 더 아프고 그래서 더 진실한 것인지도 몰랐다.

이젠 내가 아버지의 친구가 되어 드릴 수 있을까? 얇은 개울에 놓여 있는 그 나무다리 가깝게만 보이는 것이 사실 가장 먼 거리일지도 모른다. 아버지와 내 사이에도 저런 다리 하나가 놓여야 할 것 같았다.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갈 수 있게. 그것이 사소하고 보잘 것 없는 방법이라도 말이다.

교회 안을 나오면서 본 첫째 가로등이 더 이상은 의로운 빛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 스필 우수 1석

### 항아리

염승숙  
북지여자고등학교

아주 가끔, 물독을 머리에 이고 짧은 민요 한 가락을 내 귓가에 떨기 주시면서 춤추는 두령을 걸어가는 할머니를 볼 때가 있다. 할머니가 지나가신 곳은 어느 곳인지 그대로 한 폭의 풍경화가 되어버리는. 귓가에 맴도는 그 아스라한 여흥이 내 가슴 속 무언가를 쉼, 하고 울리면, 나는 흠칫 흠칫 놀라 할머니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는 나도 모르게 민요 가락 한 구절을 뽑아 내어 한참을 흥얼거리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문득, 내 안의 깊숙한 곳 어디에는 그리 크지 않은 항아리가 잠겨 묻혀져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는 이내 사라져 버렸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자리 싸움을 하고 그 사이사이로 민들레가 드문드문 고개 내밀고 서서 나를 향해 미소짓는 화창한 봄날의 문학 시간. 애써 발동음을 하며 키를 키우려는 민들레의 앙증맞은 모습이 귀여워 나는 '곧 자라게 될 거야' 라며 희망을 가득 담은 눈짓을 보냈다. 자그마한 민들레가 알아들었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는 가냘픈 고개를 끄덕였다.

철관으로 시선을 돌리니, 만화영화에 나오는 코리 아빠를 닮은 문학 선생님께서 열변을 토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보인다.  
"여기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눈' 에 밑줄 치고 일제의 암울한 시대적 배경,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도록. 그리고 또 여기서 '매화향기' 라는 것은..."  
시는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것인데, 시를 배운다는 것은, 내리는 눈송이 하나를 손으로 움켜잡았을 때의 그 신비한 느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데..... 조각나고 상처나 버린 문학 책 종이 위의 흐느적거리는 시처럼 내 마음도 흥얼거져 버려 나는 이내 시선을 거두었다. 순간, 내 안의 항아리에서 들려오는, 열고도 희미하게, 짙, 금기는 소리. 웬지 마음이 쓰리다.

열 분단 앞지리에 앉은 '바퀴' 가 나를 향해 웃어 보인다. 갑자기 눈이 마주쳐서 속쓰러웠을지라. 평소 내성적이지만 착하고 성격 좋은 내 친구 '바퀴', '박희정'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서도 앞의 '박희' 라는 두 글자 때문에 발음하기도 섬뜩한 '바퀴' 로 불려지는 그 예는 이제 자신의 끔찍한 별명에 대해서는 달관한 모양이다.  
"이거... 꼬박 삼박사일 걸린 거야. 글 잘 쓰는 애한테 편지 주려니, 웬지 떨리는데? 그대로 내 마음이나가."  
조금 지나치다 싶은 배려감 때문에 쪽지 한 장 쓰는데도 오래 고심하며 쓰는 바퀴가 며칠 전, 나에게 편지를 주며 했던 말이다. 삼박사일이라니....., 쿡쿡, 바퀴가 그 무서운 다듬이를 세우며 얼마나 고심을 했을는지. 살구향이 나는 순수함과 알싸한 동백꽃의 소박함을 한가득 머금어 뿌려놓은 듯한 예쁜 편지를 나는, 내 항아리에 테이프로 꼭꼭 붙여 넣어놓았다. 아마 지금쯤이면 그 편지를 다시 꺼내다 해도, 항아리 가득 퍼진 향긋한 바퀴의 마음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게 배어있을 것이다. 내 항아리를 감동과 기쁨, 그리고 순수와 설렘으로 가득 채워준 바퀴 녀석, 오늘은 그 애에게 뽀얀 안개꽃을 닮은 바퀴에 대한 내 마음을 적어 싱그러운 바람과 함께 날려보내야겠다.

### 내 안의 작은 항아리가 흐르는 시간에 맞춰 그 크기를 키우면

나는 그 안에 좀 더 많은 것을 담아야 할 것이다.

수업이 끝남을 알리는 종소리. 그와 함께 내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드는 연둣빛 물내음이 싱그럽다. 내 뒤에 앉은 일명 원더우먼이 내 등을 볼때로 쿡쿡 찌르며 매점에 가고 조른다. 일본에 워몰 일으키기 예산다섯 번을 하고, 백미터를 심사초에 달리며, 제자리 멀리 뛰기는 이미터를 넘기는, 믿어지지 않는 능력의 소유자, 원더우먼. 과학할 것만 같은 녀석이 그래도 괴력으로 누구의 목덜미를 후려치지는 않는 것을 보면, 관찰은 친구임은 분명하다. 때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아니 우물함을 녀석의 무뚝뚝함으로 위로해 줄 때가 있다. 텅비어 버린 항아리에 손을 대기도 차가울 정도의 맑은 물을 할랑할랑 날릴 정도로 가득 채워주고는, 평소에는 잘 보여주지 않는 녀석의 기본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이는 원더우먼. 나는 잠시나마 그 차

가운 물에 녀석의 따뜻한 마음을 곱게 풀어 손과 얼굴을 축, 담가보고는 했다.

학교가 끝나고, 어느덧 오늘 하루도 다 끝났음을 알리며 까만 밤하늘의 노오란 별이 내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으면, 나는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내 항아리는 오늘, 무엇을 이렇게나 많이 담아두었나."

하고 생각해보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날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가벼운 힘이 실린다. 하지만 흑여, 넣어두기에는 마음이 아픈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굳이 버리고 싶지는 않다. 내가 지니고 담아두는 모든 것들이 나를 자라게 하고 마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길을 걷다 보이는, 눈망울 하나 가득 봄을 싣고 꽃을 피워낸 들꽃도, 내 어깨위에 내려앉아 떨어지지 않기 위해 교복 블라우스를 꼭 쥐고 있는 개밥마라기도, 그리고 언젠가 내 주머니 속을 차지하고 앉아 새로 들어오고 나가는 다른 물건들에게 유세를 떨고 있을, 가족사진이 매달린 낡은 열쇠고리도, 모두 모두 내 작은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겨 인제고 내 얼굴에서 힘겨움을 지워내고 하나뿐인 의로운 보조기를 음뚝, 페이스 할 것임을 나는 굳게 믿고 있다.

내 안의 작은 항아리가 흐르는 시간에 맞춰 그 크기를 키우면 나는 그 안에 좀 더 많은 것을 담아야 할 것이다. 힘겨게 놓여지는 발걸음을 따라 산을 오르듯이 가쁜 숨을 몰아쉬던 오늘 아침의 떨림 또한 내 항아리에 담겨 앞으로의 '한 발자국 더' 를 외쳐줄 것만 같다. 물독을 이고 걸어가는 할머니, 미성숙함에서 배어내는 때를지않은 순수함을 가진 민들레, 가슴 하나 가득 향기를 지닌 바퀴와 원더우먼, 내 삶의 흰도화지에 색깔을 칠해주는 들꽃과 개밥마라기, 그리고 내가 만들고 가꾸어야 할 나 자신..... 이 모두가 내 항아리에 담겨져 나를 웃게 하고 있다.

살랑거리는 바람이 나의 목덜미를 쓸어내리는 것을 느끼며 비 내린 오늘, 먼 훗날 내 삶의 낡은 사진첩 속 한권을 장식하는 물항기 가득한 그림 한점으로 남게 되지는 않을런지.....

### 심사평 수필

한편의 수필을 쓰는 데 웬 고민들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싶게 너무나들 힘들어 쓴 것 같다. 야구에 있어 흥분을 치고자 어깨에 잔뜩 힘을 넣은 선수가 삼진을 당하고 물러나는 것처럼 너무도 긴장하다보니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반감된 것 같아 아쉬웠다.

'항아리' 나 '거리'는 좋은 글감이라고 생각한다. 항아리를 떠올리면 우선 무엇이 담겼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 거리를 생각하면 굳이 철학적 의미 부여가 아닌 아스라한 가로수길도 떠올릴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좋은 수필은 생수와 같은 것이다. 마시면 그때만 목소는 맛과 향이 있고 조금

지나면 다시 갈증이 나는 그런 청량음료가 아닌, 담백한 그리고 단순한데서 오는 맛있는 맛이 도리어 진맛이 되는 생수. 그와 같은 수필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정원에 서현고의 김정민이 결정되는데는 우선 주제에 기복이 없이 깔끔히 빠져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군더더기 없는 마무리에 호

감이 갔다.  
우수 1,2에는 항아리가 글감으로서 우선 사유의 깊이가 있고 오늘보다는 내일의 기대가 되는 문학적도 인정된다. 입선작에 입상한 사람들도 백지 한 장의 무게에 의해 아쉽게 내려앉았음을 밝혀 둔다. 모든 응모자에 푸른 내일을 기대한다.

### 남기고 싶은 이야기

△밥 먹구 싶어요. 글은 못 쓰고 밥만 축냈습니다. 동국대로 오세요!!!!

△시인은 늘 밤을 청천해야 한다. 그만큼 시인의 분노는 슬프고 두렵고 폭발적이어야 한다. 고로..... 시인이여 가래를 뱉어라! -관우

△신경림 선생님이 심사를 맡으셨다니 넘 좋구요. 이런 대회에 나오게 되서 너무 기뻐요. 동국대 파이팅! -인현 K

△정재봉 선생님의 시를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예선 물었을 때 "넌 사랑은 다 불었나 보냐" 라고 하시던 선생님! 이거 2천여명 중에 3백명만 뽑은 거예요 ~ ~ ~

-원영인 하이팅

△이런 곳에 나올 수 있는 걸로도 난 충분히 행복하다네...  
△즉석 시(時)

긴장된 일새  
무더운 날  
오함으로 뭉고 있다(?)

△오늘 여기에 와서 좀 더 확고한 꿈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강원 진부고 1양

△정재봉 선생님! 이런 미친한 제 글을 읽어 주시더니...영광입니다.

△신경림 교수님 저한테 싸인해 주신 거 기억하시나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동:국대에 종필이가 왔다  
국:제적인 행방이가 종필이가 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 문장도 종필이가 많다

△1964년 송유하 시인처럼 천재 시인이 다시금 동국대 콩쿠르에서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정재봉 선생님의 '물에서 나온 새' 정말 좋았구요.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공문고 소영이가

△동화적 언어의 미술사 우리의 정채를 아저씨! 채송화 채, 봉숭아 봉... 아저씨 책을 읽으면 언제나 제 마음도 고요지는 것 같아요! -안정고 김윤영

△송옥이 영남(신경림 선생님) 씨랑합니다. 쪽!!!

△시제는 새. 아... 원고지를 백지로 냈으니 이 곳이라도 된가를 써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가 동국대에 왕림(?) 이상 동국대와 동대 신문사, 동대 문학과 모두 1000년의 변성을 누리리라 예언하노라! -부산남아

△밥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기서 할렘루아 이쁜 하면 큰일나나요?

△정의여고 문장반의 정삼복이를 기대한다!

△안개비로 물드는 동대 교정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은숙

△나! 동국대생 된다. -밤순이 왠

△대구에서 왔는데요, 동국대 너무 멋집니다. 내년엔 흑사 만나게 될지도... 동대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Fighting!

△부산소녀 상경하다! 좋은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도 너무 좋구요. 기왕 온 거 상을 받아야 할텐데. 동대 신문사! 최급니당 해! -부산소녀 아틀이

△동국대는 식당이랑 화장실이 퍼펙트 환상이에요. 저 고3입니다. 다시 올 수 있었을 좋았어요. 동대신문사 번성하기를 응원합니다. 파천여고 최고!

△3년 동안 입선만 하고 밥만 먹고 가지요!

△재목이 나왔을 때의 막막함이란 평소엔 안 믿던 신을 찾게 했다. 이런 내 자신이 정말 비참하고 한심하니, 하나님 부처님 공자 맹자 기타 잡신시여!

△노오란 웃 입은 신문사 누나들 귀여웠어요.

△동대 밥 3번씩 먹는다..... 맛 있 닐!

## 캐나다 사람들

(밴쿠버, 토론토, 서울지사)

www.canadaconsulting.com

캐나다 어학연수, 조기유학, 대학진학전문,  
100% 신수 비자발급, 수속비 무료(대학생의 경우)  
현지 영주권자와 직접 상담하세요.

강남역 3번출구 하나은행 건물 5층

캐나다 전문유학원 Tel 584-0578 / 9

## 바꿔 바꿔!



### 환전전문은행 외환은행이 외국돈을 바꿔 드립니다.

- ▶ 국내은행중 가장 많은 외국통화 보유
- ▶ 거래금액에 따라 환율인인은 기본
- ▶ 인터넷 환전 클럽서비스에 가입하시면 수수료가 **확↓**

해외 배낭여행 및 해외 어학연수에 꼭 맞는 카드  
**외환 I & world 카드**

\* 자세한 내용은 www.keb.co.kr · www.yescard.co.kr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환은행 외환카드

한월우대권  
금회에 따라 10%~30%  
외환은행 전용저축

### 달하나 천강에

## 건강한 아름다움



김 호 선  
인문대  
미술학과 교수

미의 기준은 환경과 그 시대의 사고에 의해 변화해 간다. 그 시대의 편차란 크게 보면 하나의 세대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그 세대에 있어 결정 지워지는 아름다움이란 결국 특정 소수계층에 의해 만들어지는 하나의 유행성이 될 것이다. 근래에 들어 우리가 접하는 미의 기준은 자칫 미인 선발대회라는 남발된 행사에 오인되기가 쉽다. 외형에서 시작되는 미의 평가가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가장 소중한 것을 배제하고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 여인의 아름다움을 구분하는 시대적 상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고 볼 수 있다. 바로 서구 문명의 유입 이전과 이후, 즉 현대와 조선조 이전이다.

그것은 미에 대한 기준이 주변의 환경에 따라 얼마나 큰 변화를 갖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한 비교를 통한 상대성 즉 서구 문화에 대한 상대성이나 그 문화를 공유하는 남성들에 대한 상대성은 여인들에게 있어 아름다움의 기준을 서서히 바꿔가기 시작한 것이다.

서구 문화의 유입에 따른 첫번째의 변화는 바로 아름다움에의 동경이었다. 얼굴 화장이나 하이힐, 몸매를 드러내는 의상과 장식, 장신구 등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온 그 서구의 유행들은 결국 새로운 환경을 주도하게 되고 그 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기준은 우리들이 척도 해 온 미의 기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다.

요즘은 미인의 시대다. 누구나 미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옛부터 내려온 한정된 미인의 개념을 넘어서 바로 개성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사람은 드문 시대다. 그 또한 치열한 경쟁 사회라는 환경의 소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환경과 세월이 미인의 개념을 바꾸고 미인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 오트 아름다운 마음 또한 미인속에 내재될 수 있다면 가히 금상첨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인은 건강한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시사회를 다녀와서 - 키팅 더 페이스(Keeping The Faith)

# “사람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 랍비 vs. 신부 엇갈린 우정 ... 참신한 번역·배경묘사 돋보여

덥다. 봄기운이 채 가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람들의 옷차림은 한 여름이다. 올봄은 허둥지둥 그 기운을 수습하기에 바쁘고 여름은 봄기운을 몰아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

‘무슨 날씨가 이래’

미처 여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짜증섞인 말투와 표정이 역력히 배어난다.

조금이라도 이런 짜증을 달래기 위해 여름이 되면 고층 건물이 무너지고 세상이 물바다가 되는 블록버스터들이 영화계에 대거 입성한다. 그런데 아직 고질라가 도시 한 가운데에서 행패를 부리고 지구로 돌진하는 혹성을 파괴하기 위해 무식하게 폭탄을 지고 뛰어드는 영화들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본격적인 여름은 아닌가 보다.

키팅 더 페이스(Keeping The Faith). 종교 냄새가 났다. 믿음을 지키라니...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일게 뻔했다. 설상가상으로 천주교 신부와 유대교 랍비가 나온단다.

하지만 키팅 더 페이스(Keeping The Faith)는 어떤 영화보다도 아름다운 뉴욕의 여름 풍경과 경쾌한 음악, 맛깔스러운 번역으로 뜻밖의 재미를 발견하게 했다. 영화 속에서 소품으로 쓰이는 인형은, 누르면 ‘잘자, 내 꿈꿔, 날 물로 보지마’ 등의 친숙한 대사들로 관객의 허를 찌른다. 그리고 나이키 운동복을 입은 신부가 달리는 조지 코스는 ‘한번쯤 저런데서 살아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만든다.

제목에서 풍기는 느낌과 다르게 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이다. 그리고 어릴적 친구가 어느새 사랑이 되고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신부와 랍비라는 특이한 신분이 사랑의 큰 축을 이루지만 이 역시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는 사랑앞에서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결국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친구와 연인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였던 것이다.

다행이다. 블록 버스터들에 앞서 ‘키팅 더 페이스



‘(Keeping The Faith)’를 볼 수 있다는 것 말이다. 물론 당연하게도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 찍은 블록버스터들에 비하면 미미하게 찍어냈다. 고독한 작가주의 예술과도 거리가 있다. 하지만 잠시나마 긴장을 늦추게 하고 짜증나는 날씨를 잊게 만드는 그야말로 ‘로맨틱 코미디’ 한편이었다.

최은진 기자  
maenads@dreamwiz.com

경주 테마답사·체험학습

# “놓치지마, 경험해봐, 감동할거야”

### 눈요기식 여행아닌 테마별 체험학습 효과 기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여행을 꿈꾸고 또한 한번쯤 경험을 한다. 배낭 하나 짊어지고 혼자 떠나고 싶은 여행도 있고 모임에서 단체로 떠나는 여행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학여행, 답사, 졸업여행 등 우리의 기억 속에 의미 있게 남아있을 여행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볼게 된다.

의미 있는 여행을 만들고자 올 4월 경주지역 문화유적 답사 전문여행사인 ‘신라 사람들’에서 첫선을 보인 ‘테마 답사·체험학습’은 기존의 훑어보기 식 여행에서 벗어나 기억에 남을 특별한 여행을 제공한다.

즉 국가의 중심-신라의 궁궐, 영원한 현재-고분(왕릉), 신라의 흥망과 남산 등 다양한 주제의 테마를 정해 개별 문화재를 주제별로 탐구함으로써 역사의 변천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체험학습은 말로만 듣고 보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실제로 탁본을 떠보게 하거나 도자기 빚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 여행은 인터넷이나 관련 숙박업체의 홍보를 보고 경주로 수학여행 오는 학교들의 의뢰를 받아 슬라이드 강의, 테마 여행, 체험 학습을 진행하며 학교측에서 비용과 입맛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수학여행을 인솔한 한 교사는 “기존의 수학여행은 명소를 찾아가더라도 학생들이 눈요기 식으로 보고 가는 경향이 강했다”며 “이런 여행은 가이드가 함께 동행해서 학생들이 문화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한 정보 또한 얻을 수도 있어 좋다”고 말했다.

실내 테마 답사라고 할 수 있는 슬라이드 강의는 문화재 감상법의 기초를 제공하며 선조들이 문화를 접한 자세를 알려주고 이것을 현재와 접목시켜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르쳐 준다.

또한 경주의 옛 모습이나 쉽게 볼 수 없는 사진도 제공해 여행 이전에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한다.

여행은 그것을 한다는데 뜻을 두기보다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수학여행의 패턴이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친구들과 발새도록 어울려 음주와 가무로 낭장판을 벌인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여행이 또 다른 체험의 학습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소라 기자  
choya@mail.dongguk.ac.kr

## 책 소개

오래된 정원(상·하)



한국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치열한 시대정신을 지닌 작가 황석영의 신작 소설. 격동의 80년대를 살아가는 젊은 두 남녀의 사랑을 회상과 편지글, 비망록과 기록 등의 다양한 형식을 통해 박진감있게 그려내고 있다.

방북사건 이후 독일체류와 귀국 후 옥중생활 속에서 구상된 이 작품은 지난 1년 2개월간 동아일보

에 연재되어 애독되었으며 출간에 앞서 작가의 세심하고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져 그 미학적 성취와 사회성이 보다 빛을 발하고 있다.

황석영 지음/청학과 비평사/정가 상·하 각각 7천 5백원

청안청락 하십니까?



불교귀농학교 교장이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인 도법스님의 회상에 관한 산문집.

‘생명 이야기’를 부제로 단 이 산문집은 희망의 대안이 생명 살림의 세계관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인간성

과 생명 존중의 정신이 희박해져가고 있는 오늘날 인간 중심의 그릇된 사고와 삶의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도법스님은 모순과 불행은 해결하기 위해 생명의 세계와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고하고 순응해야함을 강조한다.

도법 스님 지음/동아일보사/정가 7천원

니체 신드롬

정신과 의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니체 이야기.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상업적인 이해와 상반된 사람들의 평가속에서 공허한 오해와 명성에 시달렸던 그의 일생과 오랜 병력을 되돌아본다.

또한 니체의 작품과 그가 쓴 편지, 동시대 사람들의 증언, 자료를 통해 임상적·의학적으로 니체의 삶을 재구성하고 있다.

자신의 생애를 신화의 현시로 혼동한 니체의 삶



이다.

지크 로제 지음, 이해는 옮김/이끼리오/정가 1만원

김정일의 통일전략

군사외교 평론가의 관점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의 현실을 기존의 시각과

이 철학적으로 어떻게 변주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그 해답을 찾자 한다.

1889년 1월 18일 정신퇴행으로 예나 대학 병원에 입원한 니체를 지금 이 순간에 진단을 내린다는 가정속에 전개되는 독특한 구성이 돋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기존의 보수 반공적인 관점에서 탈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의 통일관, 군사·통일전략을 조명한다.

재일동포 출신인 저자 김명철은 그동안 북한 문제에 관계된 논문과 글을 발표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애국된 시각에 주목해왔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방이나 한국에 잘못 알려진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제대로 보려는 흐름을 읽고 있으나 내용의 상당부분은 당혹감을 느낄만큼 파격적이다.

김명철 지음/살림터/정가 8천원

# 매체비평

- 비디오 편

‘바보선언’

“병든 청춘이 부르는  
암울한 시대를 향한 장송곡”



바보선언. 이장호 감독의 88년작으로 시대 풍자적인 블랙코미디.

광주민중항쟁이 있던 해 나는 대학생이었고 학교에서 선배들과 같이 밤을 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공수부대원들에게 끌

려가 학생회관에서 무릎 꿇린채 군화발로 가슴을 얻어맞았다. “너네 대학생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는 말을 자동반복기처럼 들어가면서 한 사람씩 방으로 불려가 질문에 응당한 후 사진을 찍히고

그날 오후에나 되어서 귀가조치되었는데 이미 제일병원의 교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날 집

본사기자리본

에 와서야 전국 대학에 휴교령이 내린걸 알게 되었고 다시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채 그해 여름은 서둘러서 지나간 방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광주에서 무슨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건 분명한데 어떤 정보도 차단되어 있어 답답한채 시간이 흘러갔고, 동기생들끼리 공부를 한답시고 모여있었던게 불법집회로 신고되어 조교한테 불려가 혼나고 그 모임은 해산되어 또다시 목적없이 방황하게 되었다. 방학이 끝날뎠을 성적표가 날아왔고 거의 수업을 하지도 않은 과목이 ‘C’라고 표기되어 있어 난 그만 어이가 없어 깔깔 웃고 말았다. 광주의 아픔은 우리 대학생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하지만 누구도 소리치지 못하며 숨죽일 수밖에 없었던 병든 청춘이었다.

이장호 감독의 ‘바보선언’은 당시 대학

생들의 불만과 좌절을 기성세대들, 권력층들에 대한 비난과 이유로 한풀이했던 우리 시대의 장송곡이었다. 민중은 죽고 역사는 묻혀지고 진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채찍질적인 풍자와 조소. 80년대 들어와 ‘바보’ 불어 좋은 날’로 억압받는 민중의 뿌리 뽑힌 삶을 노래한 이장호 감독은 ‘바보선언’이라는 과격적인 작품으로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다. 내가 무슨 학과의 무슨 전공을 하든 똑바르게 세상을 살자는 공부를 시켜준 영화다.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본 이 세상은 온통 바보, 천치들의 세상이다. 영화의 첫 장면에 이장호 감독 본인은 배우로 나와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하는 장면을 연기한다. 그의 몸은 신문지로 변해 이리저리 날아가고 야구장의 함성으로 이어진다. 전두환 정권 당시 온통 스포츠의

열기에 뜰려있던 시민들의 탈정치성을 풍자한 것이다. 80년대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나는 이 영화를 여전히 가슴속에 묻고 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 386 모래시계 세대가 그토록 방황했던 소중한 발자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에는 이 영화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고 나도 벌써 교수가 되었으니... 정치가가 자기를 모르고 직장인도 필하는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나 역시 교수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건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세상을 온통 불만 투성이로 지내고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내가 교수가 되다니... 그게 다 ‘바보선언’ 탓이다. 정재형 영화평론가·영화심판학과 교수

# 너에게 인터넷 방송을 권한다

## 특정 다수를 향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 초고속 네트워크 · 다양한 콘텐츠 구축 이뤄져야

몇 년 사이 TV에서 프로그램이 끝나면 제작진, 광고주들 외에 새로운 자막이 올라온다. 바로 ‘이 프로그램은 www.\*\*\*.co.kr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라는 자막이다. 공중과 방송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이와같은 서비스는 기존 TV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정보로 바꾸어 웹상에서 방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인터넷 방송이 뭐야?

이른바 인터넷 방송으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서비스는 실제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동화상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디지털 정보를 새로이 수집·가공하여 서비스를 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독립 방송 혹은 인터넷 전문 방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그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의 범주가 넓은 만큼 그 정의도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는 실정인

데 한국외대 최영 교수(신방과)는 ‘인터넷에서 웹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자 자신만을 위한 방송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꼭 집에서 그들에게만 보여줘

하지만 인터넷 방송의 개념과 특징을 무엇보다도 잘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미국의 웹캐스트, 웹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을 뜻하는 브로드캐스트(broadcast)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일방적인 정보전달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터넷은 특정한 다수를 향한 쌍방향성과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매체이다. 따라서 웹캐스트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데이터, 오디오 그리고 비디오

인터넷 방송의 종류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문자 위주의 정보를 보

내는 데이터 캐스트 혹은 워드 캐스트, 그리고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음성 정보 서비스인 오디오 캐스트, 마지막으로 그림을 포함한 동영상 정보를 위주로 운영되는 비디오 캐스트이다.

오디오 캐스트는 현재 인터넷 방송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분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음악방송과 선교방송이 주를 이루며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처럼 인터넷 음악방송이 확산되고 있는 원인은 음악이라는 콘텐츠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고 구축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비디오 캐스트는 인터넷 방송하면 떠오르는 동영상상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분야인데 현재까지 기술부족으로 공중파에 버금가는 화면을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서서히 압축기술과 초고속 네트워크, 콘텐츠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그 어느 분야보다 발전 가능성이 많고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 인터넷 방송의 오늘과 내일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방송국은 독립방송국과 중앙 언론사 인터넷 방송국으로 구분된다. 1997년 10여 명의 직원으로 출발한 독립방송국 m2Station 이후 독립 방송국은 새로운 대안매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앙 언론사에 의한 인터넷 방송의 경우, 1995년 KBS와 YTN이 시작한 이래 상당수의 방송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인터넷 방송에 주력하기 보다는 on-line과 off-line의 연계와 위성방송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03년부터 방송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기 시작하고 2010년이 되면 모든 방송 신호가 디지털화 된다고 한다. 바야흐로 인터넷 방송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쌍방향 매체, 높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방송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이에 분교 원용진(신방과) 교

수는 “TV가 PC를 지배할지 PC가 TV를 지배할지 단언하기 어렵다. 매체 수용자들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매체를 선호하는데 아직 인터넷 방송이 이 과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초고속 네트워크, 방송 콘텐츠 구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각에서의 우려와 기술혁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뒤엉킨 가운데 인터넷 방송은 오늘도 특정한 다수를 향해 끊임없이 디지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많은 인터넷 방송 가운데 어떤 방송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궁금해하며 인터넷 방송의 내일에 주시하자. 우리가 여전히 브라운관 앞에서 방송을 바라볼 지 모니터를 통해 보게될 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인터넷 방송을 권한다. 그리고 비판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최은진 기자  
maenads@dreamwiz.com

### 인터뷰 - 웹 PD 신상섭

## “전문성과 독창성이 관건이다”



인터넷 방송국 (주)채티비(www.chatv.co.kr)에서 웹PD로 활약중인 신상섭씨를 만나 인터넷 방송국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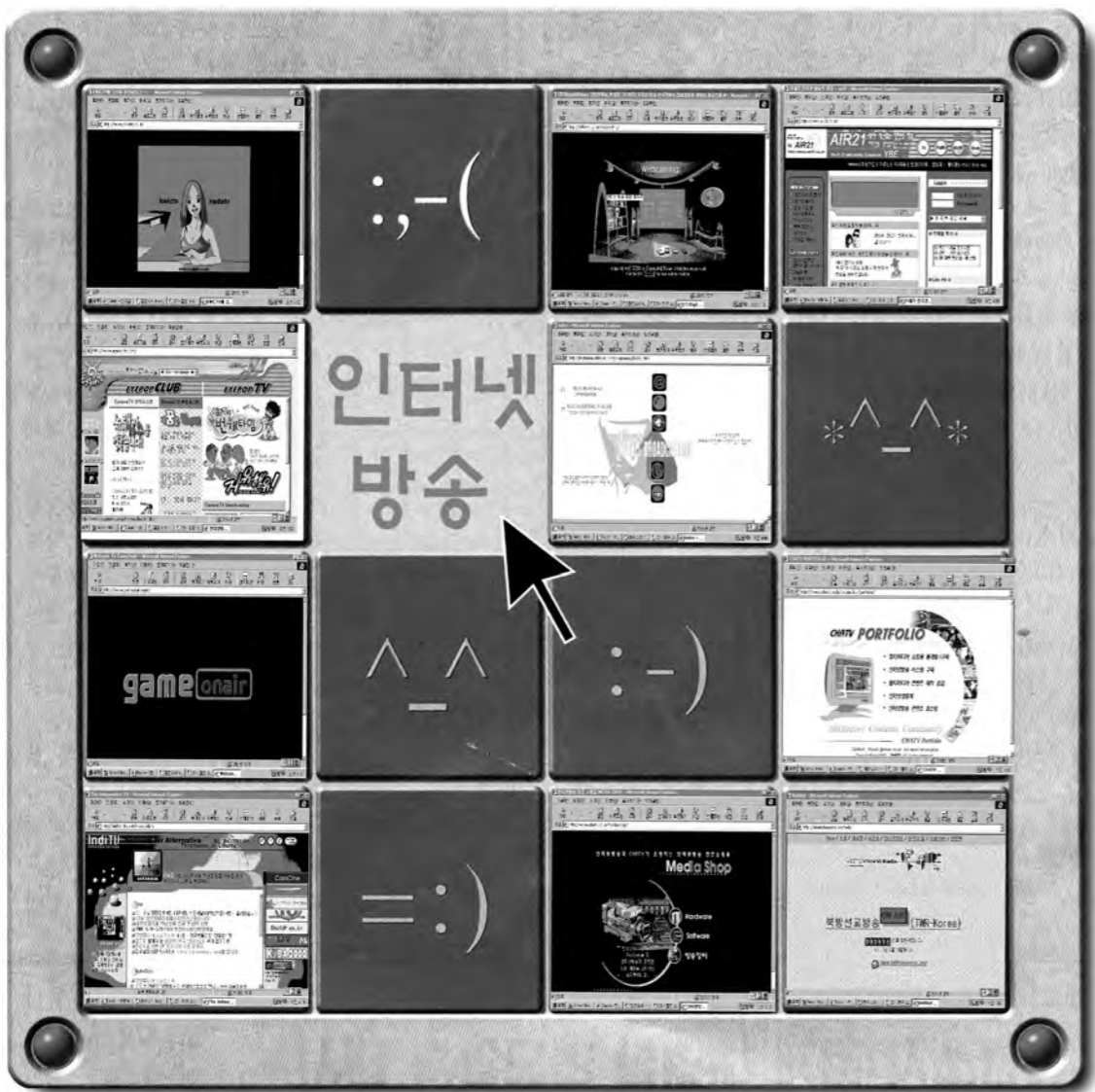
- 웹PD는 어떤 직업인가.  
= 공중과 방송 PD와 큰 차이가 없다. 프로그램 연출을 주로 담당한다.
- 다른 점이 있다면 웹PD의 역할이나 카메라 기법, 편집 등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컴퓨터와 인터넷에 관한 전반적 지식과 E-비즈니스를 위한 마케팅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인터넷 방송물의 제작과 송출은.  
= 현재 우리 나라에는 3백 50여개에 이르는 인터넷 방송국이 있다.

이 중 자체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터넷 방송국들은 주로 이미 제작된 콘텐츠를 구입해서 송출한다. 그러나 채티비처럼 자체 스튜디오가 구축되어 있는 곳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서 방송한다.

- 현재 인터넷 방송을 어떻게 보나.  
= 한 때의 유행으로 보인다.
- 공중파와는 다르게 인터넷 방송은 특별한 허가가 필요없고, 저예산으로 설립 가능하기 때문에 평생의 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의 시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1, 2년 사이 자체적인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

- 인터넷 방송을 전망해 본다면.  
= 인터넷 방송의 성공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콘텐츠 구축과 초고속 네트워크 그리고 수익 구조의 창출이다.
  -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되지 않는 인터넷 방송은 비전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정한 계층을 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매니아적인 내용을 다루는 방송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표은영 기자  
bluerain@dgu.ac.kr

질  
망  
설  
여  
?  
보  
라  
니  
까  
!



# 메아리

Anti-美

▲사회적으로 ‘미(美)’에 대한 욕구가 팽배하다. 코를 높이고 턱을 쥐고 쌍꺼풀을 만드는 것은 조금 더 예뻐지고 나면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 ‘예쁘면 다 용서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조금 밍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닐텐데...’라고 생각하면 오산. 요즘 세상은 ‘못생긴 것은 용서가 안 돼’기 때문에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불평등을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어제(28일)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제44

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열렸다. 34-34세의 환상적인 몸매와 아리따운 얼굴을 한 미녀들의 뽀내기 잔치였다. 이에 반해 지난 20일에는 외모로만 미(美)를 평가받는 것을 거부하는 안티 미스코리아 대회가 열렸다. 자신의 장기, 소질, 능력 등 내면의 미(美)를 뽐내는 이 대회는 우리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했다. 외모가 조금 못생겼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조금도 없다.

▲최근 사회적으로 미(美)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성형외과 의사도, 헤어디자이너도, 다이어트-체형관리사 사장도 아니다. 남한사회에 퍼지고 있는 반미(反美)의식을 우려하는 것은 일부 극우보수 언론이요, 미(美)에 빌붙어 한 자리 하고 있는 일부 권력자들이다. 이들은 반미(反美)의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기네 나라가 제일 잘났으며 들어내 놓고 남의 나라 일에 배놓이라 감놓이라 하는 왕자병(?)을 고칠 방도는 없는 것인가? ‘양민화살탄행’을 저질러 놓고도 한마디 사과할 줄 모른다. 남의 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탄으로 폭격 연습을 하고도 뻔뻔하게 “통일 이후에도 주둔할 것”이라고 말한다. 자칭 지구수비대로 세계 지배 야욕을 품고서 한 때는 우방이라는 선한 얼굴로 우리를 헛갈리게 했던 미(美)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미(美)는 우리에게 언제나 절대적인 존재일까? 평등한 관계로 가기 위해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화살탄행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절대 위험 천만하지 않다. 정정 미(美)는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다시 한번 미(美)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김진아 편집장  
ring@dgu.ac.kr

# 짜장소식

학교 안에서

제1회 매·비·연 영화제



서울캠 매체비평 연구회에서 오는 (29일)부터 제1회 매·비·연 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는 그동안 상업성이 떨어지고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에 개봉되지 않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상영할 예정이다.

29일	철남	츠카모토 신야
30일	전투지대	해들리·웨스트
31일	반딧불의 묘	다카하타 이사오

학림관 소강당에서, 오후 6시 30분. 문의 016-248-2373(김정신 : 매체비평 연구회 회장)

### 여성 FESTIVAL

서울캠 풍어학생회는 오늘(29일)부터 여성 FESTIVAL을 개최한다. 여성의 몸이 점차 상품화 되어가는 것에 반대하는 취지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거리전과 쌍쌍 가요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29, 30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거리전은 남성적 시각에서 미의 기준을 설정하는 미인대회와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강요하는 다이어트에 대한 반대행사가 이루어진다. 불상 앞에서 진행되는 쌍쌍 가요제는 여성들로부터 구성된 인디밴드 ‘무슨 연구소’가 출연할 예정이다. 오늘(29일)부터 6월 1일까지. 문의 2260-3614

### 국악과 타악발표회

경주캠 국악과의 첫 번째 타악발표회. 북·징·장고·꽁과 리의 잔잔한 울림이 ‘풍음’이라는 테마속에 깊게 묻어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세번째 공연 ‘풍우’는 민속악 가락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듯. 오는 6월 1일(목) 오후 6시.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 한시대 애오라지

경주캠 한시대 극단 애오라지에서 WORK-SHOP 공연을 가진다. 이번 무대에는 다리 오 포의 ‘도덕적 도둑’이라는 작품이 선보이며 관객들 모두에게 호탕한 웃음을 선사한다. 순수연극의 살아있는 정신을 느낄 수 있을 듯. 오는 6월 2일(금), 3일(토) 오후 2시·6시. 소강당 1에서.

소나기

한총련에게 고함



△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다. 진짜로 학생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대변해야 한다.  
 △과연 그대들이 진정한 학생들의 대변인인가?  
 △한사람 혹은 하나의 조직을 위해서가 아닌 총체적 동국인을 위한 총학생회가 되었으면 한다.  
 △백만 청년의 자주적 조직 '한총련' 정말 자랑스럽다.  
 △변화가 필요할 때, 시선을 잠시 안으로 돌려야 할 때, 시대의 흐름·분위기를 파악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  
 △한총련, 연합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을 듯, 끝까지 협회에 가까운 한총련.  
 △소수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주류의 횡포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법!  
 △한총련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군요.  
 △한: 국의 대학생들이여  
 총: 이 아닌 함성으로  
 련: 합하여 이 세상을 바꿉시다.  
 △진정한 한국대학 총학생 연합회가 필요하다(가칭 진한련).  
 △총학생회장 출신은 국회의원 되기 위한 수단.  
 △한총련이 추구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있다.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의 준말인데...  
 각 학교 총학이 과연 학생 대중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치비판 보다는 학생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쓰는 한총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열심히 싸워 주세요.  
 △한총련 중심으로 썩어빠진 이 나라 정치를 바꿔 주세요.  
 △한총련을 선봉으로 민족통일 완수합니다.  
 △한-국의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곳. 총-출동하여 거드를 피우는데 이 나라 정치가들을 혼내 주자. 후~련-하게 한방에 끝내 줍시다.  
 △한총련은 분명 변하고 있다. 한총련 사수하고 여타 쓸데없는 중앙학생운동 조직은 사라졌으며... 한총련 중심으로!  
 △웃기지 마라! NL동지들에게 얽혀진 반동적인 이적규정은 분명 반대하나 이전 노선에 대한 반성적인 고찰없이 여전히 '한총련 주의'를 외친다는 것은 희망없음을 전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정 전 대학생과 국민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테모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과거의 오명을 씻고 새롭게 태어나라  
 △해마다 전투 경찰 만나기 지겨우시죠?  
 △이번에도 성대한 출범식 하나봐요! 부산이 초진장 상태라고 하더군요.  
 △한총련! 통일이 되는 날까지 열심히 버지런히!  
 △부산에서 만나요!  
 △이번 출범식 무사히 마치시길...  
 △한총련 삼행시 한국에 있는 대학을 총화할 수 있는 련(연)대감을 만들자!  
 △한총련이여~ 깨어나라!!  
 △한총련과 전대협은 어떤 관계인가?

한총련 전야제? 사범대 축제?

소수 무대가 아닌 다수 참여 유도 필요

금년도 대동제를 되돌아 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학교 학생회는 상업논리에 일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 그 자세를 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학생회 노선이 한총련이니 그 역시 뒤라 타할수는 없다. 하지만 계속되는 반미구호와 투쟁구호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호응하고 참여하는지 의문이다.  
 학생회는 언제나 모두가 함께하는 대동제를 내세우나 폐막식은 문예단들의 일꾼들의 놀이였지 모든이가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었다. 그리고 사회자, 문예단, 여기에 자리를 지키는 다수가 사범대 학생이었다. 단위 단과대 사람들의 어울림조차 얻지 못하는 대동제가 과연 어울림의 대동제일까?  
 또한 이번 폐막식에서 동대신문은 기스가 출연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시대 대자보에는 안치환이 출연한다고 하였고 당일

에는 시나위가 출연한다는 광고가 있었다. 진행 시나리오조차 갈팡질팡 하는 모습에서 어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인가?  
 진취적인 운동권의 모습을 지닌 대동제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다수 학생들의 호응을 얻을 때에만 존재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나마 폐막식 자리를 채운 다수는 지나가다 잠시 들른 이들이었고 사회자 혹은 부학생회장 이 연출때는 자리를 떠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너무나 미미하다며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왜 만해광장이 매년 허전한지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내 옆을 지나가는 한 무리의 말 한 마디가 사무치며 남는다.  
 "재들 또 투쟁이야..."

김상현 (국어교육 3)

대동제 준비 미흡 심각

원활한 운영위한 뒷받침 있어야

지난 23일부터 일석대동제가 시작됐다. 모두들 축제 분위기에 즐거운 한때를 보냈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 동아리에서는 축제기간에 분식거리에 분식집을 하게되었다. 그런데 작년엔 비해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아 동아리 사람들 모두 힘들기만 한 축제 기간을 보냈다.  
 작년에는 천막도 일찍 도착해서 축제 전날 모든 준비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23일 아침에야 겨우 도착해 부랴부랴 준비를 하느라 모두들 수업도 못들어가고 천막에 매달려 있었다.  
 게다가 테이블이나 의자도 작년에는 6세 트랙 나누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테이블 2개에 의자는 6개 밖에 없어서 동아

리방의 책상과 의자를 모두 동원해야 했다. 또 우천시엔 대한 아무 예방책도 없어 분식을 하는 천막 안에서 우산을 쓰고 다녀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은 물론이고, 음식을 만들던 탁자위에 물이 새서 탁자를 통째로 들고 옮기는 일도 있었다. 특히 정전이나 감전 사고 위험때문에 모두 무척 걱정을 해야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분식집을 했는데도 우리는 굉장한 손해를 입었고 동아리의 다음 정기 행사조차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다음해에는 우리 동아리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의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은숙 (국어국문학부 2)

팔정도알 잘못된 음주행태

5월이 시작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명진관 앞 팔정도 잔디밭에서 학생들이 음주자리를 즐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야외에서 음주자리를 즐기는 것을 단순히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 때문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또한 조상들의 풍류를 계승하고 대학의 낭만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못지 못할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잔디밭에는 병 뚜껑과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고, 깔개로 활용되어 마구 구겨진 우리학교 신문이 눈에 띄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즐기는 것도 좋지만 뒷정리를 제대로 할 때만이 그것을 '풍류' 또는 '낭만'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 명진관은 우리 학교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이다. 불상 앞에서, 팔정도라는 이름을 가진 잔디밭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분

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우리의 공간이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는 유희의 공간이라고만 여겨서는 안 된다. 왜 그 곳에 잔디밭이 있는지, 불상 앞 팔정도 잔디밭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김 현 (문과대 1)



교정의 한낫... 어느새 다가온 종강과 기말고시에 대비하는 학생들로 팔정도는 부산하다. 새로 단장을 마친 다화관의 푸르른 유리벽면이 초여름처럼 시원스럽다. 촬영=송광수 동문

진정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

분할을 찾아주기 등 작은 양심부터 되찾는 자세 요구

이대로는 안된다!!!  
 1만 2천 동양학우들에게 뭐가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띄운다.  
 모두들 힘껏 스쳐 지나가며 보겠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나 도서관, 식당 주위를 보면 많은 대자보와 홍보지 그리고 또 하나, 분실물을 찾고 있다는 글이 여러 군데 붙어 있다. 그리고 찾는 사람들은 그걸 찾기가 정말 힘들다는 걸 아는 지 돈은 필요없고 신분증이든 지갑만 찾아줘도 사례를 한다고 한다.  
 이런걸 보면 불현듯 '여기가 정말 대학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된다. 상스럽게 얘기하자면 도둑놈 소굴이라는 느낌이 든다. 왜 그럴까?  
 물론 지갑이나 가방, 휴대폰, 책 등 자기 소지품을 제대로 관리 안한 학우들의 잘못도 있다.  
 하지만 양심적으로 분실물을 찾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하는 생각이 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선배이자 후배, 동기가 되는 학우들의 것인데 이렇게 무관심하고 타인의 불행을 자

신의 행운'으로 만든단 말인가? 그리고 지갑 속에 든 단돈 몇 푼에 자신의 고귀한 양심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학생, 그런 대학생 자격이 없는 정말 바보이다. 자타가 인정하는 대학생, 대학생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지성인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비양심적이라면 앞으로 우리사회의 모습은 생각만 해도 안타깝다.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있는 것이다. 참 우스운 세상이다.  
 우리 학우 모두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동체이다. 동국대라는 명패 아래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달라진다. 만약 동대생들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면 요즘 주로 관심을 갖는 취지도 힘들어 질 것이다. 비양심적인 사람을 누가 채용하려고 할 것인가? 학교도 하나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비록 우리 학교 학생이 성적 즉, 서울대, 고대, 연대 등등 다른 학교생들보다 실력이 떨어진다고 양심적이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런 행동, 생활을 더 많이 한다는 생각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다면, 이걸 취업률 100%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일 것이다. 결국 진정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박은환 ace4143@hanmail.net

TEL: 22603491 · 2  
 (0561) 7702058  
 FAX: 22791270  
 (0561) 7702057  
 아이돌 ID: dgpress  
 나무누리 ID: 동대신문  
 전리안 ID: 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소고기국밥(1300)
화	탕수육(1500) 부대찌개(1300)
수	양지탕(1300) 오징어달걀(1500)
목	소고기야채밥(1300)
금	닭개장(1500) 케찹소스볶음밥(1500)
토	감자수제미국(1300)
일	갈비탕(1500) 생야채비빔밥(1300)
월	만두강정(1300)
화	제육김치찌개(1300) 비후가스(1500)
수	사골우거지탕(1300)

(단위: 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부대찌개(1300) 우렁콩정찌개(3000)
화	해리라이스(1300) 돈나갈비구이(3500)
수	살랑탕(1300) 김치떡전골(3300)
목	참치볶음밥(1300) 이면수구이(3300)
금	사골우거지국(1300) 튀김우동(3000)
토	오징어소면무침(1500) 얼무비빔밥(3000)
일	순두부찌개(1300) 쉼념면(2500)
월	불고기백반(1500) 콩나물출름(3300)
화	어묵대용량(1300) 대구매운탕(3300)
수	해물달걀(1500) 김파전(3000)

(단위: 원)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2000년 5월 29일 서니와 지니의 40일을 축하해주세요.  
 △5월 31일 근희 생일이에요... 근희야 사랑해. 생일 축하해! -02가  
 △6월 1일 포오 생일 축하해~ -속  
 △동하의 정보 검색대회 1위를 축하합니다. MP3 넘 부러워~ -합합전사 Tison  
 △은방골 가정교육과 김현진 오빠랑 '300일'을 축하하고 멀리서도 항상 사랑해~ -호돌이  
 △세리아오빠! 22살 늙은이 되겨 정말 축하해요. -멋진 00아름과 리나  
**수고하셨습니다**  
 △민사 아그들! 주점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앞으로도 힘차게 살아가 보

자구나. -민사팀!  
 △축제 때 영문과 분식 준비한 사람들 모두 수고했다. -최고 학번이  
**열심히합니다**  
 △경제 94동기들아! 나 다녀간다. 공부 열심히할 해야돼 꼭!! -S.A.S.O 회장 태태경아! 요즘 이래 저래 힘들지? 우리 조금만 힘내자! 싸랑한다. -너의 지기가  
**그리고...**  
 △은방골 심흥! 왜 연락을 안 하느냐? 시뭇 너는 아니냐? 내 마음을...  
 △동대 신문이 올바른 목소리의 선두에서 서길 바랍니다.  
 △동국에게 부탁한 거 들어줘서 고맙다. -너의 친구로부터  
 △우리의 사상가, 조폭, 영남아! 보고싶다. 언능 와서 빈자리를 채워라. T.K가 울부쳐 쓴다. -SM  
 △아빠야, 너의 살인 다이어트 꼭 성공하길 빈다. 화이팅!  
 △민사팀!  
 △최고 학번이

**은방골**  
**축하합니다**  
 △김무순님(가정교육97) 교생실습 잘 끝마친 것 축하합니다. 마르지 않을 사랑으로 그대결을 지키는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북받은 봄이  
 △지혜야 생일 축하한다. 동기들과의 우정 영원히 지켜나가자. 그리고 항상 행복해해~  
**수고하셨습니다**  
 △종만선배(회계4). 정식선배(경제4) 교생실습 하느라 수고했어요~ 축전에 약속도 없나봐. -97 흰뺨  
 △희진아(불교아동97) 한달여 동안 실습한다고 수고 많았어. 그동안의 노력이 빛나기를 바란다. -너의♡  
 △R.C.Y 회원님들. 축제기간동안 고생이

많았죠. 수고하셨습니다. -16기 일동  
 △저항문화제 준비하신 여러 동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철학과 학우님들 축제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홍보  
 △동국연극회, 뽕품선 맞느라 모두들 고생했어요! -맹  
**알립니다**  
 △동국 대중음악 창작동아리 'CIRCLE선영'에서 올산대 가요제 3팀, 입학가요제 1팀 본선 경연합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씨름선영 파이팅!  
 △중양풍물패 '불휘' 정기공연을 가집니다. 25일 5시 놀아봅시다.  
**그리고...**  
 △Adventure 회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며, T.II 창간자 친구들아!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해. 그래도 늘 너희를 생각하고 있단다. -겉때기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배추국(1300) 자장면(1200)
화	잡탕(1800) 새우볶음밥(1800)
수	수제미국(1300) 김치콩나물국(1300)
목	돈가스(1500) 녹지볶음달걀(1800)
금	근대국(1300) 된장찌개(1300)
토	쇠고기달걀(1700) 케찹라이스(1500)
일	미역국(1300) 무채어묵국(1300)
월	전주비빔밥(1800) 돈육달걀(1600)
화	복어채국(1300) 얼갈이국(1300)
수	생선가스(1800) 해리라이스(1500)
목	콩나물국(1300)
금	오징어달걀(1600)
토	오명국(1300)
일	혈떡볶음(1600)

(단위: 원)